

碩士學位論文

農業經營人の 幸福度에 미치는
影響要因에 관한 研究

2011年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컨버전스컨설팅전공

김 준 호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朱亨根

農業經營人の 幸福度に 미치는
影響要因에 관한 研究

A Study on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Happiness of Agricultural Managers

20010年 12月 日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컨버전스컨설팅전공

김 준 호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朱亨根

農業經營人の 幸福度에 미치는
影響要因에 관한 研究

A Study on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Happiness of Agricultural Managers

위 論文을 컨설팅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10年 12月 日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컨버전스컨설팅전공

김 준 호

金竣顥의 컨설팅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3
제 2 장 이 론 적 배 경	5
제1절 농업경영인의 정의와 특성	5
1. 농업경영인의 정의	5
2. 농업경영인의 특성	6
제2절 행복도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9
1. Csikszentmihalyi의 Flow모형	9
2. Flow 모형을 통한 농업경영인의 행복도 측정	29
3. Flow 모형과 행복도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32
제 3 장 연 구 방 법	36
제 1 절 연구모형	36
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37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37
1. 제어도	38
2. 집중도	38
3. 흥미성	39

4 관심도	39
제 4 절 표본의 선정 및 분석방법	40
제 5 절 설문문항의 내적일관성 분석결과	41
 제 4 장 연구 결과	 43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사회통계학적 특성	43
제 2 절 농업경영인의 행복도의 구성요소들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46
제 3 절 농업경영인의 다양한 집단별 행복도의 검증결과	47
1. 농업경영인의 연령에 따른 행복도 검증결과	48
2. 농업경영인의 영농경력에 따른 행복도의 검증결과	49
3. 농업경영인의 영농 종사자수에 따른 행복도의 검증결과	51
4. 농업경영인의 영농자동화 정도에 따른 행복도의 검증결과	53
5. 농업경영인의 인터넷 사용기간에 따른 행복도의 검증결과	54
6. 농업경영인의 판매가격 만족도에 따른 행복도의 검증결과	56
7. 농업경영인의 목표생산량 달성에 따른 행복도의 검증결과	59
8. 농업경영인의 컨설팅 수진 횟수에 따른 행복도의 검증결과	60
제 4 절 가설의 검증결과	62
 제 5 장 결론 및 제언	 65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65
제 2 절 정책적 제언	66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68
 참고문헌	 69
부록 (설문지)	74
ABSTRACT	76

< 표 목차 >

[표 2] Flow의 개념에 관한 주요연구	12
[표 3-1] 표본의 선정	41
[표 3-2]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 검증결과	42
[표 4-1] 조사대상자의 사회통계학적 특성	45
[표 4-2] Flow의 4개의 차원과 상관관계분석 결과	46
[표 4-3] 연령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 검증결과	48
[표 4-4] 영농경력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 검증결과	50
[표 4-5] 영농종사자수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 검증결과	51
[표 4-6] 영농자동화 정도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 검증결과	53
[표 4-7]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 검증결과	55
[표 4-8] 판매가격 만족도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 검증결과	57
[표 4-9] 목표생산량 달성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 검증결과	59
[표 4-10] 컨설팅 수진 횟수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 검증결과	61
[표 4-11] 가설의 검증결과	63

< 그림 목차 >

<그림 2-1> 3채널 Flow 모델	22
<그림 2-2> 4채널 Flow 모델	23
<그림 2-3> 8채널 Flow 모델	24
<그림 2-4> 가니, 스프니크, 루니의 인과관계 모델	25
<그림 2-5> 지혜나이와 디스판드의 인과관계 모델	26
<그림 2-6> 트로비노와 웹스터r의 인과관계 모델	27
<그림 2-7> 호프만과 노박의 인과관계 모델	28
<그림 2-8> 노만, 호프만과 영의 인과관계 모델	29
<그림 3-1> 연구모형	36
<그림 4-1> 가설의 검증결과 연구모형	6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과거의 농업은 부가가치가 낮고 많은 노동을 투입해야하는데 비해 그 성과가 적은 비효율적인 생산방식과 유통채널을 지니고 있는 산업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농업은 이제 생산품을 판매하는 "상업농(商業農)"시대를 넘어서 규모화 되고 체계화된 생산시스템과 가공, 유통 시스템을 포괄하는 본격적인 "농산업(農產業)"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여전히 생산을 자연력에 의지한다는 1차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개념의 상품과 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농산업화(農產業化)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¹⁾

그러나 농업 강국인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들이 농업을 농산업으로 이해하고 준비하면서 UR, FTA를 통해 농산물 수출을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후계인력의 부족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농업은 생존의 차원에서 체질을 혁신하고, 대회 여건에 맞서기 위해서는 고품질 생산기술과 과학적 경영능력을 보유한 정예인력의 확보, 유지가 필요하며 정부의 지원도 부분적 지원체계에서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경영체 육성과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²⁾

정부의 정책적 환경의 변화는 영농의 대규모화, 자동화, 정보화가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인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제품의 질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과 유통채널의 확보 등에서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농업환경의 부정적인 변화와 농업인의 계속적인 이탈 현상은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

1) GS&J (2009) "덧에 걸린 농가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농업, 『농촌의 길 97호』 3p

2) 김사균(2006)"농업경영비즈니스 과정을 통한 우수농업경영체 육성방안", 한국농촌지도학회 227p

으며, 양질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공급한다는 입장에서 국민의 보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업과 관련한 농기계, 생명공학, 프렌차이즈, 외식산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가격 하한선을 지정하고, 해외 농산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는 등 개별농가를 지원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방안을 노력하였으나 개별농가들은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응능력이나 추진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생산 및 유통단계별로 다양한 정책메뉴를 개발해서 농가를 지원하고 있고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역, 품목단위의 클러스터사업을³⁾ 지원하였으며 신지식농업인 선정과 농업분야의 정보인프라구축, 농업인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면서 기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지식농업에 기반을 둔 벤처농업⁴⁾ 도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들은 소기의 성과는 있었지만 결국 한국 사회의 농업이 가지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의 해결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을 장려하여 내수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경영인은 기존의 농업인과 차별화된 개념으로 농업인에 경영과 전략의 마인드를 심어주어 효율적으로 경작하고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고수익, 저비용,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선진화된 농업인을 뜻한다. 농업경영인은 계량화된 지표를 통한 시장 수요의 파악과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관리를 추구하며 다양한 유통채널을 개발하고 경영에 있어서 컨설팅의 개념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지역클러스터란 일전지역의 특화된 농산업을 혁신을 위하여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관련 산, 학, 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농산업을 결집체를 말한다(농림부, 2005)

4) 기존의 관행적인 농업형태와는 달리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조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경영형태의 농업을 벤처농업으로 정의함(농림부, 2002)

농업경영인의 사업 범위가 점차 프랜차이즈, 대기업, 외식산업 등과 연계되면서 더욱 확장되고,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 하고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이러한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농업환경과 농업인, 농업교육, 판매가격과 물가, 농업기술과 소비자 인식 등에 대한 연구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작 그 숫자와 사회경제적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농업경영인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나 몰입,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업경영인의 행복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러한 행복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찾아내고 궁극적으로 농업경영인 육성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를 주관적 만족도 또는 행복, 몰입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검증되고 있는 Flow 모형을 차용함으로써 각 구성요소별로 행복도를 측정하고, 다양한 농업경영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를 자세히 파악해 봄으로써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를 각 집단별로 정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본 연구는 먼저 농업과 농업경영 환경에 대해 파악해 보았으며, 본 연구가 사용하게될 농업경영인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그들의 행복도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Flow 모형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후 선행연구들의 탐색을 통해 Flow 모형을 농업경영인의 특성과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통계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행복을 구성하는 Flow의 각 구성요소별로 행복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복도가 농업경영인의 다양한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리 나타나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본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농업경영인의 행복도 측정을 위해 현재 농업 및 농업관련 산

업에서 종사중인 농업경영인을 무작위 추출하여 2010년 10월 1일부터 2010년 11월 15일까지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14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불성실 응답자 및 결측값이 지나치게 많은 응답자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00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추가로 2010년 11월 21일부터 2010년 11월 27일까지 수집된 128부의 설문지를 합산하여 총 228부의 설문지 데이터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각 측정문항의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제어도, 집중도, 흥미성, 관심도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각 행복도의 구성요소별로 농업경영인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도의 크기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통계의 처리는 SPSS ver 18. 을 통하였으며, 연구자의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여 $p < .05$ 보다 높은 유의확률을 보이는 통계값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배경, 연구의 범위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농업 및 농업경영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서 농업경영인의 정의와 전문적인 농업경영인의 육성, 행복도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Csikszentmihalyi의 Flow모형과 농업경영인의 행복도 측정, 행복도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술하였다.

제 3장 연구방법에서는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의 설정과 정의, 변수의 조작적 정의, 표본의 선정 및 분석방법, 설문문항의 내적일관성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제 4장 조사대상자의 사회통계학적 특성, 농업경영인의 행복도의 구성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가설의 검증결과를 기술하였다.

제 5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연구의 한계점 및 연구방향을 기술하였다.

제 2 장 이 론 적 배 경

제 1 절 농업경영인의 정의와 특성

1. 농업경영인의 정의

농업경영인이란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영농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외부 환경이나 자신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농업경영방식을 채택하고, 경영자 자신이 영농을 계획, 수행, 점검하는 일련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경영인을 농업경영인이라 정의할 수 있다. 농업경영인은 단순한 농업에의 종사자가 아닌 이러한 것들을 기능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의 환경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활용함으로써 최대의 생산 및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제품의 판매 및 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⁵⁾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농업경영자 능력이라고 하는데 농업경영자의 능력은 장래구상의 구축을 위한 계획기능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의사결정기능, 계획을 실천하는 실행기능, 실행한 사항을 분석, 진단, 평가하는 네 가지의 기능을 말한다.⁶⁾

농업경영인은 환경의 변화에 비교적 민감하고 정부 정책의 변화를 감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의 농업 종사자를 뜻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이러한 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이 범 정부차원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농업경영인의 숫자도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경영인은 자신이 생산한 제품에 대

5)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http://www.kaff.or.kr>

6) 차동욱(1999) “농업경영자 능력의 요인분석” 전북대학교 『농대논문집, 제30권』 87p

한 정보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농업을 둘러싼 환경과 정책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농업의 소득과 생산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경영인은 최근의 FTA, 정보화의 도입,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은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농업경영의 트렌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파악하고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⁷⁾

정부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농업경영인들에게 농업법인경영체⁸⁾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지원과 육성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전문인력 육성단계를 체계화함으로써 발전단계별 지원을 내실화하고 관련기관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구체화하여야 하며, 특히 타산업에 비하여 위축되어 있는 농업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새로운 창의성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농업경영인이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신지식인을 발굴하는데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 3년 과정으로 농업전문인력을 육성을 하고 있고, 연간 209명의 농업전문지식을 갖춘 인재가 배출되어 우리 농가의 신선한 바람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⁹⁾

2. 농업경영인의 특성

급변하게 변화되는 세계적인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살아 갈 수 있는 척박한 한국의 농업현실 속에서 농업경영인은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농업경영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와 분석항목을 사용하여 농업경영인을 진단하고 진단에 따른 사회적 특성과 성과에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지 확인하고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를 주관적 만족도 또는 행복, 몰입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검증되고 있는 Flow 모형과 각 구성요소별로 행복도를 측정하여 다양한 농업경영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7) 백민석(2009), “경북의 농업경영인 육성정책 및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8) 김정호(1999, 농촌경제 22권) “농업법인의 경영체 성격에 관한 고찰” p73 개별농가의 협동에 바탕을 둔 협업조직 재인용,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농업법인제도가 발족됨

9) 백민석, 전개논문, pp.11-17.

1) 농업경영인의 기술적 특성

농업경영인의 기술적 특성은 기술, 경영수준에서는 시설 및 자동화, 환경관리, 작물관리, 경영관리이며 필요기술에 대한 수요 분석은 환경관리기술지도, 작물관리 기술지도, 경영관리기술지도이며 전략과제에 대한 평가는 단일브랜드사용, 출하처 확보, 홍보, 가공제품개발, 재배기술의 평준화, 농산물의 생산, 산지, 경매장 건립 등이며 산한협력에 대한 인지도 및 기대는 산학협력 인지도와 활동에 대한 기대로 평가 할 수 있다.¹⁰⁾

농업경영인의 기술적 특성은 농업경영인의 토양과 시설을 기반으로 농산물의 생산능력증대에 따른 판매와 산업협력단과의 협력의 특성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사회적요소와 환경적인 요소 보다는 농업경영인의 기술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2) 농업경영인의 능력적 특성

농업경영인의 능력적 특성은 정보력, 계획력, 실천력, 대응력, 수치력, 협조력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정보력은 세미나, 영농교육 참가여부, 컴퓨터를 이용한 농업정보 활용여부, 농업관련기간으로부터 정보활용, 조직활동을 통한 정보활용 등 이다. 계획력은 생산품목 전환계획, 생산규모 조정계획, 목표 생산량 달성여부, 영농계획 작성여부, 차입금의 정상적인 상환여부 등 이다.

실천력은 각종 교육내용의 현장 적용유무, 생산물의 판매시기와 장소고려, 수량보다 고품질의 선택유무, 작업 후 정리정돈여부 등 이다.

대응력은 재해보험 가입여부,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 신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조절 여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한 노력 등 이다.

수치력은 비용과 판매액과의 차이를 생각, 생산비 절감 방법, 차입금의 상환인식 정도, 컴퓨터 이용 및 수지계산 실시 여부 등 이다.

10) 방윤정(2010), “진천수박 명품화를 위한 농가경영진단과 전략과제 발굴”, 『농업경영.정책연구 37권1호』 p.93

협조력은 농장경영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지역 사람들과 교류 정도, 가족끼리의 행사여부, 공동이익을 위한 희생여부 등이다.¹¹⁾

농업경영인의 능력적 특성은 6가지 진단지표의 항목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이러한 능력적 특성을 어떻게 성취하고 달성하는 하는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성과의 결론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농업경영인의 경영 활동적 특성

농업경영인의 경영활동 특성은 기본적요인, 실천적요인, 사고적요인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기본적요인은 목적성, 인간성, 주체성, 협조성, 합리성, 건강, 정보수집능력이며 사고적요인은 신념을 갖는 태도, 농업경영자의 정신, 인간존중의 태도, 과학적 태도, 관리자정신과 리더십 이며 실천적요인은 선견성, 결단성, 실행력, 대응력, 창의성, 응용력, 분석력, 계수감각으로 구분되어 진다.¹²⁾ 농업경영인의 경영활동 특성은 농업의 경영하는 필요한 요소들을 세분화하여 각 요인들을 주제에 맞게 평가하여 실질적인 경영활동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경영활동 특성을 통해 농업경영자의 발현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자능력에서 생산, 경영 기술적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다.

11) 유찬주(2008), “농업경영자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1권4호』 p.1813

12) 차동욱 전개논문 p.90 재인용

제 2 절 행복도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1.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의 Flow모형

Flow의 개념은 동기화 이론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동기의 범주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적동기(extrinsicmotivation)란 한 개인이 외부로부터 보상을 받고 벌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내용 그 자체와는 관계없이 다른 이유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는 경우이며 이에 따르는 외적 보상은 돈, 특권, 승진 등으로서 타인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내적동기(intrinsicmotivation)는 개인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기로서, 흥미나 호기심과 같은 요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스스로의 욕구에 대한 반응을 말한다. 내재적 동기는 외부의 보상과는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때 형성되는 것으로 이에 따르는 내적 보상은 성공적인 활동이 끝난 후 느끼는 만족감, 성취감, 자아존중감 향상 및 그 활동의 성취 등을 얻을 수 있다.¹³⁾

내적동기를 통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자신의 자아상을 확인하고 자아상이 건강하게 발전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내적 동기화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춘 1세대적 연구는 리처드 드샴(Richard deCharms)로서 성취동기(achievementmotivation)가 높으면 적절한 목적을 설정하게 되고 수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⁴⁾ 그는 능동자 집단과 피동자 집단으로 나눈 실험을 통해 능동자 집단은 자신이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외적 요소와 무관하게 자신의 일을 보다 진지하고도 즐겁게 수행하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에드워드 디씨(Edward.L.Deci)는 사람들이 자신이 즐거워서 하게 되는 일을 돈을 받고 하게 된다면 그들은 보상을 받지 않을 때보다 흥미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실험연구를 통

13) Csikszentmihalyi, Mihaly.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pp.8-15.

14) R. DeCharms., and M S Muir, Motivation: Social Approach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29, pp.91-113.

해 밝힘으로써, 보상에 의해 행동하게 될 때는 자신의 의지가 작동하기 보다는 외적 힘에 의해 조절받고 도구화된다는 드삼(Deusyam)의 의견에 동의했다.¹⁵⁾

성취동기가 높고 능동자의 자세로 보상을 적절히 받는다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열정을 지속적으로 성취 할 수 있다는 것이 검증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매슬로우(Maslow)는 인간이 창조적인 활동을 수행할 때 얻는 극치의 경험(peak experience)을 설명하기 위해 활동과정(process)과 활동에 의한 결과물(product)을 통해 얻는 심리적 경험을 구분하였다. 그는 화가를 예를 들면서, 그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일반적인 보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림 그리기 그 자체가 보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을 이루려는 욕구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강도 높은 활동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발견하려는 욕구가 그것이다.¹⁶⁾

이러한 초기 내적 동기화 연구자들은 대부분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에 관심을 가졌으며 내적으로 동기화된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는 행동의 내적 보상으로 작용하는 주관적인 경험의 질에 관심을 가졌다. 이를 위해 전형적인 실험연구를 벗어나 경험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반응지에 답하게 해서 내적 동기화를 연구하였다. 그는 피험자들에게 자신들의 활동이 특별히 잘 수행될 때의 상태를 기술하라고 하였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경험의 질이 어떠한 내적동기보다 높은 공기를 가지고 자신의 활동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는 Flow 개념의 논리적 진술을 구성하였다. 그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피험자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경험, 즉 응답자들이 자기 목적적으로 또는 그 자체가 보상이 되는 심리적 경험

15) L. Deci Edward ,Richard M. Ryan,(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pp.3-4.

16) A. H Maslow.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pp.15-17.

을 하였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칙센트미하이는 이러한 경험을 ‘플로우(flow)’라고 명명하면서 최초로 개념화하였는데 즉 Flow란 행동이나 과제 그 자체가 흥미롭고 즐거운 것으로 외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지속되는 자기 목적적 경험(autotelicexperience)으로 활동 자체에 Flow를 하다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 한 느낌을 갖게 되는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¹⁷⁾

1) Flow의 정의

지난 20년간 Flow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 및 수량적 모델화 노력이 부족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Flow를 정확하게 개념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었다.¹⁸⁾ 지금도 학자마다 다른 정의와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Flow개념을 도입한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 1977)는 “사람들이 완전히 Flow한 상태에서 행동할 때 느끼는 정신적, 신체적 흥분”이라고 정의 하였다. 그는 그 상태에서는 인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관계없는 지각이나 생각은 걸러지고 그 행위에 더욱 더 빠져든다고 하였다.¹⁹⁾

<표 2-1>은 지금까지 Flow의 개념을 정의한 연구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트레비노(Trevino)와 웹스터(Webster, 1992)의 연구 그리고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 1988)의 연구에서의 Flow에 대한 정의이다. 트레비노(Trevino)와 웹스터(Webster)는 통제, 호기심, 본질적 재미의 4가지 특징이 종합된 선형적인 변인으로 Flow를 조작화 하였지만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 기술(skill)과 도전(challenge)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17) Csikszentmihalyi, Mihalyi and Rathunde, Kevin.(1992). The Measurement of Flow in Everyday Life: Toward a Theory of Emergent Motivation. Development al Perspectives on Motivation, pp.57-97.

18) P. Novak, Thomas and L. Hoffman, Donna (1996). New Metrics for New Media: Toward the Development of Web Measurement Standards", *The Journal of Marketing*, Vol.60, pp.50-66.

19) M. Csikszentmihalyi (1977), The ecology of adolescent activity and experi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6(3), pp.281-294.

Flow라고 정의하였다. 전자는 Flow를 일종의 개인적 성향(traits)으로 개념화 한 것이고, 후자는 상태(state)로 파악한 것이다.²⁰⁾

다른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개념적 정의도 위의 연구들에서의 정의와 유사한데, 대부분의 개념적 정의가 직관적이고 정확히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개념적 정의로부터 추출해 낼 수 있는 공통적인 Flow의 구성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재미’, ‘즐거움’, ‘기쁨’, ‘최적의 경험’, ‘Flow’, ‘집중된 주목’, ‘기술과 도전의 균형’, ‘호기심’, ‘시간의 망각’ 등이다. 즉 Flow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도전으로 느껴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지녔을 때 도달되는 상태로 재미와 즐거움, 기쁨을 느끼는 최적의 경험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표 2] Flow의 개념에 관한 주요연구²¹⁾

연구자	개념적(조작적) 정의
Csikszentmihalyi(1977)	사람들이 완전한 Flow상태에서 행동할 때 느끼는 정신적, 신체적 흥분
Privette & Bundrick (1987)	본질적으로 재미있는 경험, 최적의 즐거움
Csikszentmihalyi & Csikszentmihalyi(1988)	도전(challenge)과 기술(skill)이 어떤 수준 이상에서 균형을 이룰 때 시작
Mannel, Zuzanek & Lason(1988)	어떤 행위의 영향, 잠재력, 집중과 기술/도전의 균형에 대한 인식을 측정함으로써 조작화 가능
Massimini & Carli (1988)	응답자가 주간(weekly)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기술과 도전이 균형을 이룰 때
LeFerve(1988)	주간 평균 수준보다 높은 도전과 기술의 균형정도
Csikszentmihalyi & LeFerve(1989)	도전과 기술이 높을 때 사람들은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이러한 최상의 경험이 Flow

20) L. K. Trevino & J. Webster (1992). Flow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search*, Vol.19(5), pp.539-573.

21) 이보미(2006), “온라인에서의 Flow와 여행상품 소비자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재인용.

Csikszentmihalyi(1990)	행위에 대한 통제,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달함을 느낄 때 흥분감과 깊은 즐거움, 완전한 Flow을 경험
Ghani, Suprick & Rooney(1991)	행위에 대한 완전한 집중과 기쁨, 주어진 상황에서 지각된 도전과 개인이 지닌 기술과 균형상태
Trevino & Webster (1992)	(1)이용자가 지각하는 컴퓨터 상호작용에 대한 통제력정도 (2)이용자가 지각하는 상호작용에 집중하여 주목하는 정도 (3)상호작용중에 이용자의 호기심이 자극되는 정도 (4)이용자가 본질적으로 재미있는 상호작용을 발견하는 정도로 나타낼 수 있음
Webster, Trevino & Ryan(1993)	위의 Trevino & Webster(1992)의 개념정의와 동일
Clarke & Haworth (1994)	도전이 이용자의 기술과 결합되는 상황에서 행위에 수반되는 주관적 경험으로 재미와 완전한 만족
Ellis, Voelkl & Morris(1994)	어떤 행위에 대한 완전한 집중과 그 행위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도전과 기술의 합치 및 환경에 대한 통제감이 Flow의 경험에 영향
Luts & Guiry(1994)	어떤 사건, 사물, 행위에 완전한 Flow시 경험되어지는 마음이 상태로 시간이 멈춰지고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음
Hoffman & Novak (1996)	네트워크 항해중 발생하는 상태로 (1)기계적상호작용에 의해 촉진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반응 (2)본질적으로 재미있고 (3)자기의식을 상실하고 (4)자기강화(self-reinforcing)를 수반함
Novak & Hoffman (1997)	어떤 행위에 대한 기술과 도전의 합이 Flow이고, 그 차이가 지루함/ 근심임
Novak & Hoffman & Yung(1998)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개념으로 기술, 도전, 통제, 각성에 의해 형성되고 Flow의 결과 웹사용의 증가, 긍정적영향, 탐색적 행동의 증가, 시각왜곡 등이 나타남
Zinkhan(1998)	도전과 기술이 높은 상태로 자신이 좋아하는 행동시 느끼는 경험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
황용석(1998)	심리적 최적감, 즐거움, 원거리실재감, 주의집중이 높은 상태

2) Flow의 측정

개념적 정의의 차이 때문에 Flow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즉 Flow를 성향(traits)이나 상태(state)로 정의할 뿐만 아니라 Flow의 선행변인, 결과들이 혼재되어 개념적 정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 측정방법 또한 혼재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나타난 Flow의 측정방법은 첫째 서사/질문(narrative/survey) 방법, 둘째 활동/설문(activity/survey) 방법, 셋째 경험표집(experience sampling) 방법 등 세 가지이다.

서사/설문 방법은 응답자들에게 Flow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기술하게 하고 설문지를 사용하여 그 경험을 평가하게 하는 방법으로 Flow를 측정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번드레이크(Bundrick, 1987)은 일상생활을 절정 도달, 절정 경험, Flow, 보통사건, 고통, 실패 등 6가지 범주로 구분한 후 각 범주에 대한 예를 들어준 후, 응답자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6가지 범주에 하나씩의 이야기를 적게 한 후, 각 이야기를 47개의 항목으로 되어있는 ‘경험 설문지’를 통해 평가하게 하였다.²²⁾ 이러한 측정은 여섯 가지 행위유형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를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Flow에 대한 풍부한 측정과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의 평가에 그치며,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형태의 사건에서 경험하는 Flow의 정도를 측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인 활동/설문 방법은 선별적인 활동에 참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그 활동에 대한 회고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Flow를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트레비노(Trevino)와 웹스터(Webster)와 라이언(Ryan, 1993)은 컴퓨터 수강과정 학생과 이메일 사용자를 대상으로 통제, 주목, 호기심, 재미 등 Flow의 구성요소(construct)를 측정하였으며²³⁾, 지엔나이(Ghani, 1991)은 CMC회의, CMC 그룹작업, 면대면 그룹

22) G. Privette and C. Bundrick (1987), Measurement of experience: Constructs and content validity of the experience questionnair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65, pp.315 - 332

작업을 한 각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즐거움과 집중으로 조작화한 Flow를 측정하였다. 최근 인터넷에서 소비자 행동을 Flow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대한 온라인 조사는 인터넷 사용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정 활동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사후 조사만으로 간단히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이다.²⁴⁾

끝으로, 경험표집 방법은 Flow를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Flow 이론의 창시자인 칙센미하이(Csikszentmihalyi)이 고안해낸 방법이다. 그는 하루 8차례(무작위적으로), 일주일에 총 56회 응답자들을 호출하여, 호출당시 하고 있었던 행위에 대한 기술과 도전을 측정하는 경험표집 양식을 완성하게 한 후 기술과 도전점수를 표준화하여 일주일동안 전체 활동 중 기술과 도전이 높은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는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행위를 할 때 Flow를 경험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지금까지 Flow를 측정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경험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컴퓨터의 경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활동/설문 방법으로 Flow를 측정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다른 방법에 비해 활동/설문 방법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Flow를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구성요소(construct)를 지닌 속성으로 파악할 때 여러 구성요소와 관련 변인을 측정하여 Flow와의 관계를 구조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 역시 이와 같은 활동/설문 방법을 통해 Flow를 측정하였다.

3) Flow의 특성

일반적으로 Flow의 특성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론이 Csikszentmihalyi가 제시한 9가지 특성이다. 그가 제시하는 Flow의 주요

23) J. Webster and K. Trevino. and L. Ryan. (1993). The Dimensionality and Correlates of Flow in Human-Computer Interactio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s*, Vol. 9, pp.411-426.

24) J. A. Ghani and R. Supnick and P. Rooney (1991), The experience of flow in computer-mediated and in face-to-face groups, *Proceedings of the twel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pp.6-10.

특성은 명확한 목표 (cleargoals), 즉각적인 피드백 (immediate feedback), 도전과 기술의 균형 (balance between challengesandskills), 당면과제에 대한 집중 (concentration on thetask athand), 행위와 인식의 통합 (merging of action and awareness), 자의식의 상실 (loss of self-consciousness), 시간감각의 왜곡 (altered sense oftime), 통제감 (sense of control),자기 목적적 경험(autotelicexperience)이다.

(1) 명확한 목표 (clear goals)

사전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개인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 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는 행동을 지시하고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Flow에 이르기 위해서는 목표가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행동이 진행됨에 따라 매 순간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알게 되고, 개인은 궁극적으로 Flow를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명확한 목표는 집중을 돕고, 주의산만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자신과 상황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다.

(2) 즉각적인 피드백 (immediate feedback)

피드백이란 행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행동을 계속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피드백은 성공적 과제 수행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신의 신체와 움직임에 의한 피드백뿐만 아니라 환경에 의한 외적 신호를 제공한다. 이처럼 피드백은 자신들이 해야 할 과제와 관련이 있으며, 자신이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를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Flow는 정확하고 신속한 피드백이 지속적인 행동과 연관됨을 의미한다.

(3) 도전과 기술 사이의 균형(balance between challenges and skills)

도전과 기술의 균형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행위로서의 도전과 그 도전에 대한 행위자의 적절한 기술(능력)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각된 도전의 수준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간의 조화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Flow를 경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 때 도전과 개인의 기술 모두 높은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도전에 대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개인의 객관적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자신의 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자신감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4) 당면과제에 대한 집중 (concentration on task at hand)

주어진 목표가 분명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공되며, 자신의 기술이 상황의 요구와 적절히 조화될 때 개인은 자신이 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Flow 상황에서의 집중은 목적적이며, 자신의 당면 과제와 무관한 일에는 주의가 분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몰입의 순간에는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순간의 정확한 행동과 느낌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5) 행위와 인식의 통합 (merging of action and awareness)

Flow상태에서 개인의 활동이 자발적으로 즉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행해짐을 말한다. 또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실제로 마치 숨을 쉬는 것이나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것처럼 어떤 부자연스러운 것이 없이 한 부분처럼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심신의 노력없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능력을 수행하는 이러한 과정은 결국 전적인 집중의 결과로 나타나 행동과 하나가 됨을 느끼게 된다. 이는 자신이 가진 기술 수준이 상황의 도전에 충족되어지고, 자신의 모든 주의

가 주어진 당면 과제에 집중될 때 일어난다. 자기 자신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경험은 행동에 긍정적인 느낌과 최상의 느낌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순간을 회고하는 것은 긍정적인 Flow의 감정을 낳게 하고, 동기의 근원과 최적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청사진을 제공하기도 한다.

(6) 통제감 (sense of control)

Csikszentmihalyi는 통제감을 통제의 모순(paradox of control)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Flow 상황 하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 자신의 수행에 대해 완전한 통제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제감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주며, 도전적인 과제에 대해 능력을 가지도록 한다. 참여자는 자신의 기술과 과제를 감당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을 아는 것은 침착함, 자신감, 능력을 참여자가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느낌을 통제감이라고 언급하기도 하고, 긍정적 사고, 자신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²⁵⁾

(7) 자의식의 상실 (loss of self-consciousness)

자아의 Flow에 따른 자의식의 상실은 행위가 완전하게 Flow를 요구하게 될 때 자기중심성이 사라지면서부터 이루어진다. 두발 & 위크런드(Duval & Wicklund, 1972)의 객관적 자기자각이론(object self-awareness theory)에 의하면, 자기자각은 개인이 주의를 자아(self)에 집중한 상태를 말한다.²⁶⁾ 이를 바탕으로 페닝스타인, 쉬에르 & 부스(Fenigstein, Scheier & Buss, 1975)는 주의의 초점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자아에 두는 경향성을 자의식(self-consciousness)라 정의하였다.²⁷⁾ 특히 완전히 몰두한 순간에서

25) M. Csikszentmihalyi and J. Geirland (1996). Go With The Flow. *Wired Magazine*. Vol.4, Issue. 9, pp.47-49.

26) Duval & Wicklund, (1972), A theory of objective self awareness, Academic Press, pp.12-16.

27) A. Fenigstein, and M. F. Scheier, and Buss (1975), Arnold H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3(4), pp.522-527.

Flow상태에 들어간 이후에 개인은 일시적으로 자의식을 상실하게 된다. 즉, 마치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 현상 또는 행동으로 자신이 하나가 된 것 같은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Flow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은 의식하지만, 의식한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는 않는다. 이는 사람이 환경과 조화되거나 또는 감정과 하나가 되도록 몰구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표현된다.

(8) 시간감각의 왜곡 (altered sense of time)

Flow의 상태에서는 시간의 과중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Flow의 상태에서는 시간이 평소에 지각되는 것과는 다르게 변형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시간의 변형은 전적으로 집중되었을 때 나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 지각의 방향감 상실은 모든 사람이 Flow를 경험할 때, 반드시 경험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일반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9) 자기 목적적 경험 (autotelic experience)

Flow의 핵심요소는 그 경험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며, 사람들은 활동에 따른 즐거움으로부터 만족을 느끼며, 만족 자체가 보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구하도록 동기화된다. 심지어는 전혀 즐거움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활동에서도 Flow이 나타난다. 이처럼 Flow란, 즐거움의 감정이 포함된 내적으로 보상된 경험이다.

4) Flow의 구성요소

기존 연구에서 수행된 Flow에 대한 개념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Flow의 심리적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유발하는 선행변수와 결과변수를 기술하는 정의들이다(황

용석,1998).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나타난 Flow 구성개념은 숙련도(skill), 도전감(challenge), 환기(arousal), 통제(control), 탐색적행동(exploratory behavior), 주의집중(focused attention), 상호작용(interactivity), 관여도(involverment), 최적자극수준(optimalstimuluslevel), 즐거움(playfulness), 긍정적 감정(positive effect), 텔레프레젠스(telepresence), 시간왜곡 등의 13가지이다.

호프만과 노박(Hoffman & Novak, 2000)은 16개의 주요 Flow 연구를 분석한 후 Flow를 13개 개념들로 재정의 하였다. 인터넷 이용에 관한 3가지 변인(주당이용시간, 이용기간, 향후 이용시간)을 추가하여, 위의 구성요소 13가지를 Flow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배경변인’(background variables), ‘내용특성’(contentcharacteristics), ‘1차적 선행변인’(primary antecedents), ‘2차적 선행변인’(secondary antecedents), 관련변인(flow correlates), 결과변인(flowconsequences)등으로 정리했다. 이 구분은 Flow의 선행변인과 Flow, 그리고 결과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⁸⁾

위의 많은 구성개념과 구성요소는 Flow를 알아가고 확인하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서로의 연관성과 변수들로 인해 새로운 Flow로 변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Flow의 단계

Flow경험을 인과적 모델로 설명하려는 연구들은 대부분 Flow 상태에 따라 선행변인, Flow 관련변인, Flow 결과변인 등으로 범주화하고, 각 범주에 해당하는 변인들을 측정함으로써 Flow 경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칙센미하이(Csikszentmihalyi)는 자신이 제시한 Flow의 9가지 특성들 사이의 관계성을 밝히고자하였다. 그는 이러한 특성들이 Flow이 발생하기 이전단계(antecedents), 진입단계(threshold), 경험단계(experience),결과단계(consequence)를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상호 연계되고 의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28) D. L. Hoffman and T. P. Novak (2000), Measuring the customer experience in online environments: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Marketing Science*, Vol.19(1), pp.22-42.

먼저 Flow의 이전단계는 최적 경험으로서의 Flow에 들어가기 전 Flow를 위해 필요한 행동의 조건을 말하는데, 비교적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하며, 빠르고 분명한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하고, 기술과 도전이 균형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Flow의 진입단계는 Flow경험의 출발점으로서 직면한 과제에 대한 집중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 행동과 지각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Flow의 경험단계는 Flow상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통제감, 자의식의 상실, 시간왜곡이 만들어지며 마지막으로 Flow의 결과단계에서는 외적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Flow 자체를 추구하는 자기목적적 경험을 들 수 있다.

6) Flow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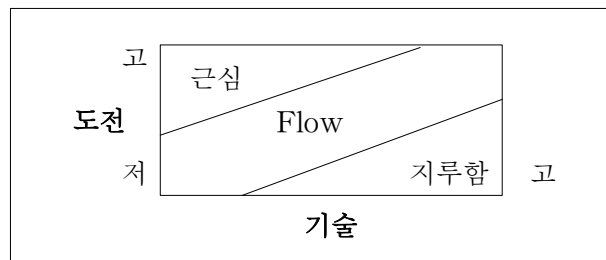
Flow 모델은 앞에서 서술한 Flow의 정의, 측정방법 및 구성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Flow와 그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알기 쉽게 모형화 하려는 노력이 Flow모델의 발전을 가져왔다. Flow 모델은 채널 세분화 모델과 인과관계 모델로 분류되는데 채널세분화 모델은 Flow를 정의하거나 Flow 경험 상태를 발견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고, 인과관계 모델은 Flow와 관련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모형화 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1) 채널세분화 모델(channel segmentation model)

채널세분화 모델은 앞서 말한 Flow의 측정방법 중 경험표집 방법(experience sampling method)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 즉 Flow의 채널세분화란 사람들이 특정 행위시 인지하고 있는 도전과 기술의 정도에 따라서 Flow를 경험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세분화의 기준이나 구별이 객관적인 것은 아니고 연구자의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된다. 따라서 연구자들마다 채널세분화 모델은 채널의 수를 몇 개를 분류하느냐에 따라 3채널 Flow모델, 4채널 Flow모델,

8채널 Flow모델로 분류된다.

3채널 Flow 모델은 칙센미하이(Csikszentmihalyi)가 Flow를 도전과 기술이 합치되는 곳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개념 정의에서 유래한다. <그림 2-1>은 칙센미하이(Csikszentmihalyi, 1975)의 3채널 Flow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이 인지하는 행위에 대한 도전과 기술이 합치되는 곳에서 Flow를 경험하게 되며, 도전이 기술보다 클 때는 근심(anxiety), 반대로 도전이 기술보다 작을 때는 지루함(boredom)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⁹⁾



자료: 칙센미하이(Csikszentmihalyi, 1975)

<그림 2-1> 3채널 Flow 모델

하지만 칙센미하이(Csikszentmihalyi)의 3채널 Flow 모델은 이후 많은 실증적 연구들(Ellis, Voelkl & Morris, 1994, Nakamura, 1988; Wells, 1988 등)이 지속되면서 응답자가 인지하는 도전과 기술이 모두 낮은 곳에서 합치하는 경우에는 Flow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수정을 하게 되었다.³⁰⁾³¹⁾³²⁾

그래서 새로운 채널을 추가한 모델이 4채널 Flow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어떤 행위시 사람들이 인지하는 도전과 기술이 낮은 수준에서 합치되

29) D. L. Hoffman, and T. P. Novak (1997), Measuring the Flow Experience Among Web Users, Vanderbilt University, pp.9-11.

30) Gary D. Ellis, Judith E. Voelkl, and Catherine Morris (1994), "Measurement and Analysis Issues with Explanation of Variance in Daily Experience Using the Flow Model,"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6(4), pp.337-356.

31) A. Wells, (1988), "Self-Esteem and Optimal Exper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19-326.

32) J. Nakamura, (1988), "Optimal Experience and the Uses of Tal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19-326.

는 경우에는 Flow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apathy)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그림 2-2> 참조) 하지만 이 모델도 도전과 기술이 중간 수준일 경우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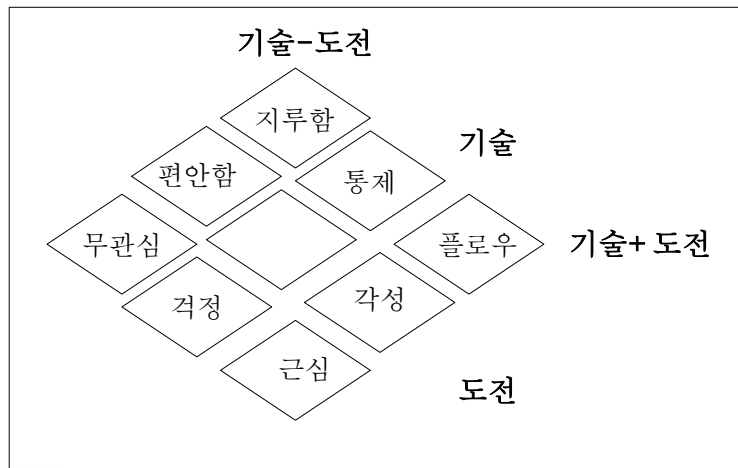
도전	고	근심	Flow
	저	무관심	지루함
		기술	

자료: 칙센미하이(Csikszentmihalyi, 1975)

<그림 2-2> 4채널 Flow 모델

도전과 기술의 수준이 중간 단계인 경우를 추가한 것이 8채널 Flow 모델이다. 앞의 4채널 모델에 통제(control), 걱정(worry), 각성(arousal), 편안함(relaxation)을 추가하여 8개 채널로 구성하였다. 이 모델은 도전과 기술의 합이 높아 Flow에 이르러도 인지하고 있는 기술수준이 중간정도이면 통제를 경험하며, 도전수준이 중간정도이면 각성을 경험하게 된다. 반대로 기술과 도전의 합이 낮아 무관심에 이르러도 인지하고 있는 기술

수준이 중간정도이면 통제를 경험하며, 도전수준이 중간정도이면 각성을 경험하게 된다. 반대로 기술과 도전의 합이 낮아 무관심에 이르러도 인지하고 있는 기술수준이 중간정도이면 편안함을 느끼며, 도전수준이 중간정도이면 걱정을 하게 된다.



자료: 칙센미하이(Csikszentmihalyi, 1975)

<그림 2-3> 8채널 Flow 모델

마사이마니와 씨에라이(Massimini, Carli, 1988)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2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위와 같은 8개 채널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정확하게 8개 패턴이 발견되어 현재 가장 설명력 높은 채널 세분화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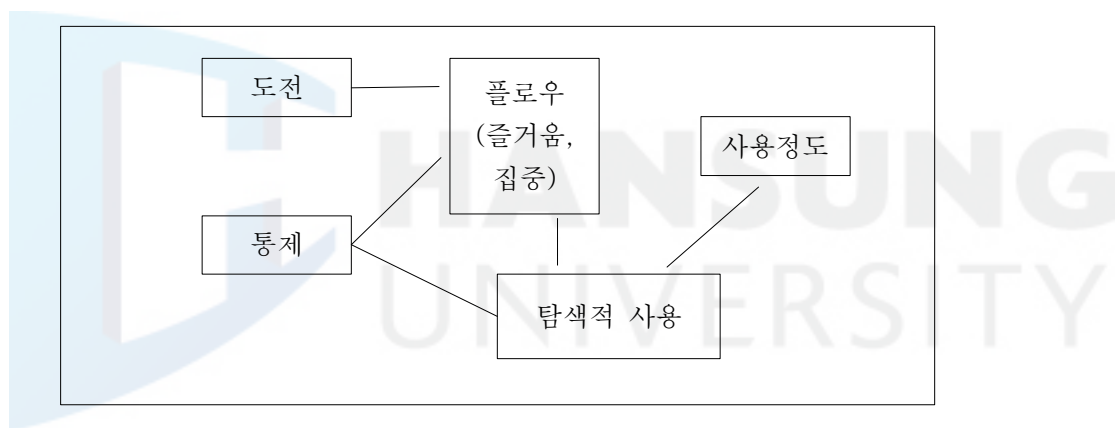
(2) 인과관계 모델(casual model)

인과관계 모델은 앞서 말한 Flow의 측정방법중 활동/설문 방법(activity/survey method)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모델들은 Flow의 구성변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초창기에는 주로

33) Massimini, Fausto and Massimo Carli (1988), The Systematic Assessment of Flow in Daily Exper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88-306.

Flow를 직접 측정하려는 노력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Flow의 선행변인과 결과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하고 있다.

인과관계 모델의 최초연구는 가니, 스프니크, 루니(Ghani, Supnick, Rooney. 1991)에 의해서 행해졌다. 그들은 Flow를 즐거움(enjoyment)과 집중(concentration)을 측정하는 8문항으로 조작화 하여 측정하고, 통제(control), 도전(challenge), 탐색적 사용(exploratory use), 이용정도(extent use)와의 관계를 모델화 하였다.³⁴⁾ 연구결과 <그림 2-4>에서 도전과 통제가 Flow에 영향을 미치며 Flow는 탐색적사용에 그리고 탐색적 사용은 사용정도에 각각 영향이 미치며 또한 통제가 탐색적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하지만 그들은 Flow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기술을 측정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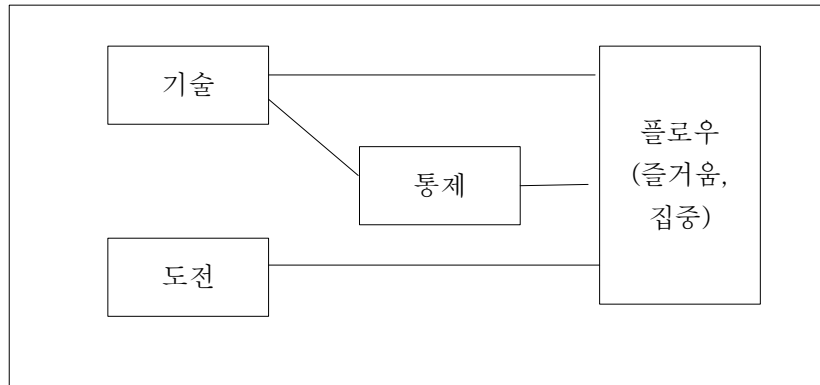


<그림 2-4> 가니, 스프니크, 루니의 인과관계 모델

그래서 지혜나이와 디스판드 (Ghani, Despande. 1994)는 기술을 포함하여 새로운 인과관계 모델을 검증하였는데, 연구결과 <그림 2-5>와 같이 기술이 직접적으로 Flow와 통제에 영향을 미치며, 도전 역시 Flow에 직

34) Ghani, A. Jawaid. Roberta Supnick & Pamela Rooney (1991), The Experience of Flow in Computer-Mediated and in Face-to-Face Groups, Proceedings of the Twel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DeGross, J.I, I. Benbasat, G. DeSanctis, and C. M. Beath, Eds., New York, New York, pp.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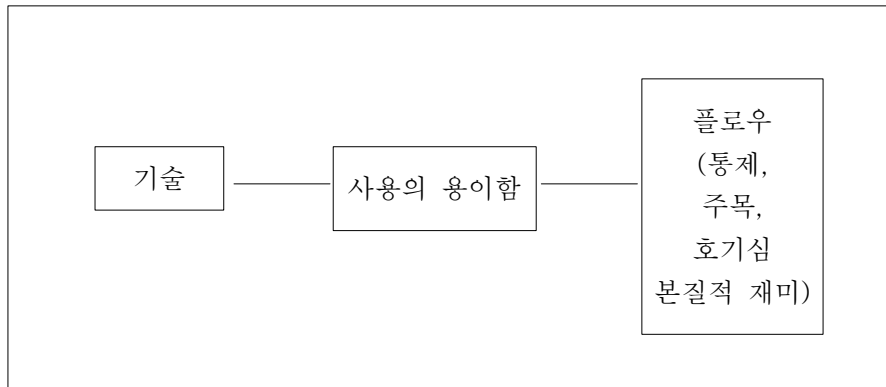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또한 Flow가 도전과 기술의 인지된 수준이 둘 다 높을 경우에만 나타난다고 하였다.³⁵⁾



<그림 2-5> 지혜나이와 디스판드의 인과관계 모델

트로비노와 웹스터(Trevino, Webster. 1992)는 선행연구들이 Flow를 즐거움과 집중으로 조작화 하여 측정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통제(control), 주목(attention focus), 호기심(curiosity), 본질적 재미(intrinsic interest)로 조작화 하여 Flow를 측정하고 기술과 사용의 용이함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그림 2-6>에서와 같이 사용의 용이함이 기술과 Flow의 중재변인임을 밝혀냈다. 하지만 그들은 도전을 측정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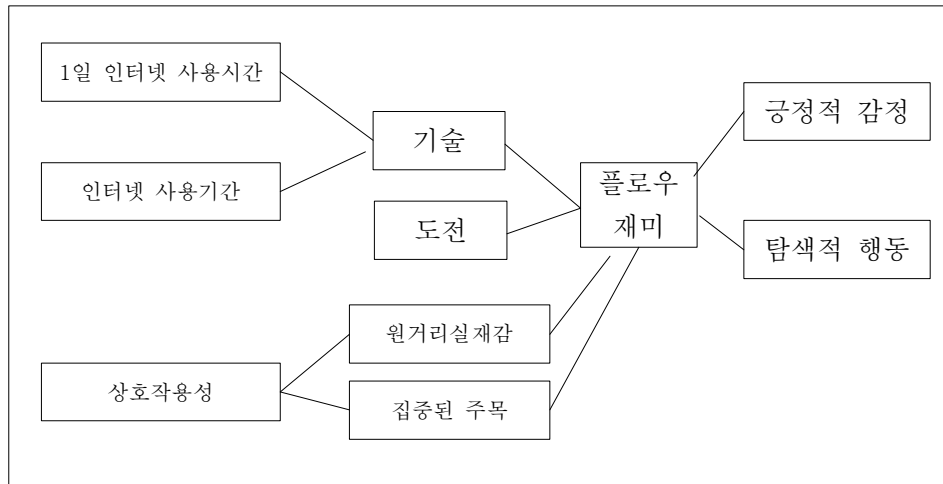
35) Jawaid A. Ghani and Satish P. Deshpande (1994), "Task Characteristics and the Experience of Optimal Flow in Human-Computer Interact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Vol.128(4), pp.381-391.



<그림 2-6> 트로비노와 웹스터의 인과관계 모델

위와 같은 인과관계 모델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중의 하나는 Flow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것이다. 즉 즐거움, 집중, 통제, 주목, 호기심, 본질적 재미 등이 Flow의 선행변인이나 결과가 아닌 그것을 규정하는 구성요소로 연구되었다는 것이다. 호프만과 노박(Hoffman, Novak, 1996)의 Flow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인과관계 모델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것은 실증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한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들은 <그림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기술과 도전 그리고 집중된 주목(focused attention), 원거리실재감(telepresence)에 의해 Flow가 결정되며, 기술의 선행변인으로 1일 인터넷 사용시간 및 인터넷 사용기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Flow의 결과로 긍정적 감정과 탐색적 행동의 증가가 나타나며, 상호작용성은 원거리실재감과 집중된 주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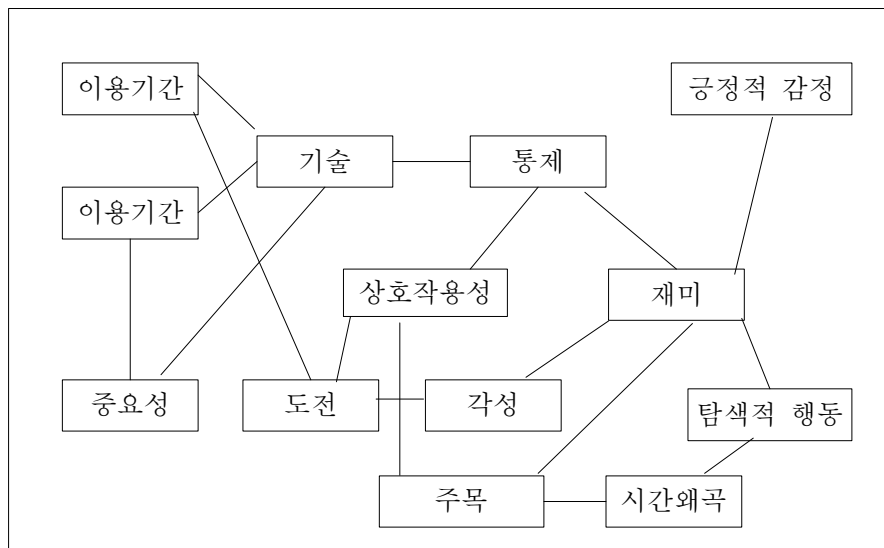


<그림 2-7> 호프만과 노박의 인과관계 모델

호프만과 노박(Hoffman, Novak. 1996)의 Flow에 대한 인과관계 모델의 개념적 제시 후, 그 모델에 대한 실증연구가 최근에 실시되었다. 노만, 호프만과 영(Novak, Hoffman & Yung. 1998)의 연구가 그것으로,³⁶⁾ 그들은 호프만과 노박(Hoffman, Novak)의 개념적인 인과관계 모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모델 적합도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2-8>과 같이 수정된 Flow 인과관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실증모델이 개념적인 모델과 가장 다른 점은 원거리실재감(telepresence)이 실증모델에서는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이며, 도전이 이용기간에 대한 종속변수(부정적 관계)로 되었고, 상호작용(속도)이 재미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또 Flow의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던 시간왜곡(time distortion)이 집중된 주목(focused attention)의 종속변수로 나타날 뿐 재미와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술이나 도전이 직접적으로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통제와 각성이라는 변인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새로운 관점에서 발견되었다. 이후 연구(황용석, 1998)에서도 기술과 도전이 직접적으로 Flow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통

36) T. P. Novak, & D. L. Hoffman and Yung, (1998), Modeling the Structure of the Flow Experience Among Web Users, Paper prepared for *Marketing Science and the Internet Mini-Conference*, MIT.

제와 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⁷⁾



<그림 2-8> 노만, 호프만과 영의 인과관계 모델

2. Flow모형을 통한 농업경영인의 행복도 측정

본 연구에서는 Flow 모형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Flow 모형에서 측정지표로 사용되는 제어도, 집중도, 흥미도, 관심도를 농업경영인에 대입하여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지 구성을 설계하였다.

1) 제어도(Control)

제어도(Control)란 자신의 제어하에 농업경영에 대한 정보습득, 농업경영 전반, 전략, 농기구 사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인지하는 정도이다.

37) 황용석(1998), “웹 이용과정에서 플로우 형성에 관한 이론적 모델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웹스터와 트레비노(Webster & Trevino, 1993)는 Flow 모형을 이용하여 주관적 만족도의 측정을 위해 경영 대학원생 133명과 회계업 종사자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제어도를 포함한 추출된 4개의 요인을 신뢰성 검증한 결과 .82의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웹스터와 트레비노(Webster & Trevino)의 설문지를 중심으로 주관적 만족도를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로써 용어를 일치시키고, 영농경영인의 특성에 맞게 일부 설문 문항을 변경하여 농업경영인의 제어도를 측정하는 문항 q1과 q6을 리커트 5점 척도의 등간척도로 구성하여 포함하였다.

2) 집중도(Attention focus)

집중도(Attention focus)란 농업경영인이 다른 일에 신경쓰지 못할 만큼 농업에 집중하고 있는 정도로써 농업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써, 농업과 관련한 교육에 대한 집중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의하였다.

아가왈과 카라한나(Agarwal & Karahanna, 2000)의 연구에서는 이를 집중적 몰두(Focused immersion)라 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집중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사용하고 있었다.³⁸⁾

가니(Ghani, 1994)은 대학생 500명과 직장인 140명을 대상으로 한 Flow 도에 관한 연구에서 집중(Concentration)이라 하여 집중을 주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었으며, .92의 높은 신뢰계수를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니(Ghani)의 설문 문항을 차용하여 농업경영인의 행복도 중 집중도를 측정하는 리커트 5점 척도의 등간척도로 구성된 문항 q4, q9, q10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 흥미성(Curiosity)

38) R. Agarwal, and E. Karahanna (2000), Time flies when you're having fun: Cognitive absorption and beliefs about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MIS Quart, Vol.24. pp.665-694.

흥미성(Curiosity)이란 농업경영인이 농업을 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용자의 주관적 흥미성을 자극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농업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발휘하며, 농업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흥미성을 이용자의 행복도 및 Flow도를 측정하는 측정지표로써 사용하고 있는 연구로는 아가왈과 카라한나(Agarwal & Karahanna, 2000)의 연구가 있으며, 트레비노와 웹스터(Trevino & Webster, 1992)의 연구에서 역시 Flow 모형을 기초로 한 주관적 만족도의 측정에서 의료사업 종사자 287명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뢰계수는 .72로 검증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그 중 흥미성(Curiosity)을 측정지표로써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⁹⁾

따라서 본 연구 역시 흥미성을 주관적 만족을 측정하는 측정도구의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트레비노와 웹스터(Trevino & Webster)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인의 내용에 맞게 영농에 대한 흥미성에 관한 문항으로 수정을 가하였으며, q2, q3, q5의 세 개의 리커트 5점 등간척도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4) 관심도(Intrinsic interest)

관심도(Intrinsic interest)는 농업경영인들이 농업에 임하는 동안 내재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관심의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농업 교육 및 농업에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심리적 강도를 의미한다.

웹스터와 마토치오(Webster & Martocchio, 1995)는 FFlow 모형을 이용한 행복도의 측정에서 국립대학교 직원 143명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한 설문지 분석의 결과 .85로 신뢰도가 검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관심도를 측정지표로써 연구분석에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39) L. K. Trevino & J. Webster, (1992). Flow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search*, Vol. 19(5), pp.539-573.

관심도를 측정지표로써 설문에 포함하였으며 웹스터와 마토치오(Webster & Martocchio)의 설문문항을 차용하여 관심도를 측정하는 q7, q8의 두개의 문항을 리커트 5점의 등간척도로 구성하였다.⁴⁰⁾

3. Flow모형과 행복도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농업경영인의 행복은 농업경영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을 뜻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인의 행복을 Flow모형을 구성하는 4차원인 제어도, 집중도, 흥미도, 관심도의 차원에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Flow모형을 이용하여 주관적 만족도 및 행복과 몰입을 측정하고 있는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Flow모형을 차용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박차라(2009)는 호메커(Homecker)의 정의에 따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촉진적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를 만들고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였으며 촉진적 상호작용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조작에 의한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상호작용에 공간이나 이동 등과 같은 공간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감각적이고 표현적인 묘사를 통해 시스템의 전반적인 표현력을 강화시키며 시스템 사용자의 행동을 촉진하는 상호작용 환경을 구조화 한다고 언급했다. 만족감이란 개인이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만족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에서는 아래 2가지요소에 따라 이러한 만족감의 크기가 좌우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주관적 만족감에 대해서 칙센미하이(Csikszentmihalyi)는 한 가지 활동에 깊이 몰두함으로써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자기 실현감과 더불어 즐거움, 쾌락, 기쁨 또는 재미도 함께 느낄 수 있다고 정의하였는데 박차라(2009) 역시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거리감을 상호작용 대상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친한 상대인가에 따라 느끼게 되는 심리적 거리감으로 정의하고, 사물, 사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으로, 여기서의 거리는 지각자의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상호작용대

40) J. Webster and J. Martocchio (1995). The Differential Effects of Software Training Previews on Training Outcomes." *Journal of Management*, Vol. 21(4), pp.757-787.

상까지의 지각적인 거리를 말한다고 함으로써 촉진적 상호작용과 만족감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는 분석을 위해 야구 동호회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선발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실험 관련 홍보를 한 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총 210명 중 남자 164명, 여자 46명으로 구성된 표본집단을 구성하였으며, 촉진적 상호작용과 만족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만족감에 대해 행복도가 사회적 거리감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Flow의 경우 촉진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거리감에 의해 48%의 설명력 R제곱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감의 경우 촉진적 상호작용에 의해 21%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만족감은 Flow와 사회적 거리감에 의해 52%의 설명력 R제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포크(Folk)와 밀러(Miller)가 제시한 검정력인 10%를 상회하는 값이었다.⁴¹⁾

이러한 박차라(2009)의 연구는 만족감의 영향요인으로써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표로써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의 Flow 모형을 바탕으로 한 측정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부분에서 본 연구의 연구설계와 합치하고 있었다.

조우영(2010)은 SNS의 범주으로써 마이크로블로그 이용자들의 인지된 특성과 Flow, 재사용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인지된 특성이란 마이크로블로그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을 나타내며, Flow에 대해서는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 1977)의 정의에 따라 한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완전히 몰두함으로서 빠져드는 최적의 경험이라고 정의했다. 개념의 구성요소로는 인지된 도전, 인지된 기술로 구분하였다. Flow은 즐거움, 흥미성, 시간적해리, 제어도감, 실재감, 집중의 6개의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표본집단의 수는 206명이었으며, 이들 중 남성의 비율은 90(43.7%)명이었고, 여성은 116(56.3%)명으로 구성되었다. 평균

41) 박차라(2009), “촉진적 상호작용이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NintendoWii를 이용한 단체응원시스템”, 한국경영정보학회, 『2009 춘계학술대회, 그린IT와 경제위기 극복』, pp.811-816.

연령은 23세 정도였으며, 170명(82.6%)이 직접 마이크로블로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지적 특성·행복도와 재사용의도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이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사용의도에 대해 인지된 도전, 인지된 기술, 즐거움, 흥미성이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요인들은 관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우영(2010)의 연구 역시 칙센미하이(Csikzentmihalyi)의 1977년 연구를 토대로 주관적 만족과 동일한 개념인 Flow에 대한 측정지표로써 즐거움, 흥미성, 시간적해리, 제어도감, 실재감, 집중의 6가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설계와 합치하는 부분을 보였다.

이형룡(2006)은 연구에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구매행동과 구매의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들 간에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구매의도를 결정짓는 몇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칙센미하이(Csikzentmihalyi)의 Flow 모형에서 자발적 흥미, 도전감, 숙련도의 3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이 3가지 개념과 전형성, 관여도의 상관관계를 거쳐 어떻게 구매의도에 반영되는지 연구하였다.⁴²⁾

김미영(2008)은 그의 연구에서 Flow 모형에서 차용한 집중, 흥미, 시간의 왜곡, 호기심 4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학습에 대한 몰입이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었으며 분석결과, 모든 Flow 구성요소에서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김미영(2008)의 Flow 모형 설계는 본 연구가 사용하고자 하는 구성요소인 집중도와 흥미, 호기심(관심도)의 3개의 차원에서 일치하고 있었으며, 이에 본 연구의 논리적 근거로써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⁴³⁾

이시훈(1999)은 그의 연구에서 Flow의 선행변인인 통제, 각성, 집중된 주목, 원거리 실재감의 4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인터넷 광고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 몰입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으며, 검증의 결과 인터넷 광고에 대

42) 이형룡 (2006),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 - 국내 K 항공사를 중심으로, 한국관광레저학회, 『관광레저연구, Vol.18(3)』, pp.99-119.

43) 김미영(2008), “학습자의 사전지식, 인지부하, 몰입, 학습성취도 간의 관계규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 태도와 구매의도에서 모든 Flow 구성요소와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있었다. 이시훈(1999)의 연구는 본연구가 차용하고 있는 Flow의 구성요소 중 통제, 집중된주목의 2가지 부분에서 본 연구 설계와 합치하는 부분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논리적 근거로써 제시하는 바이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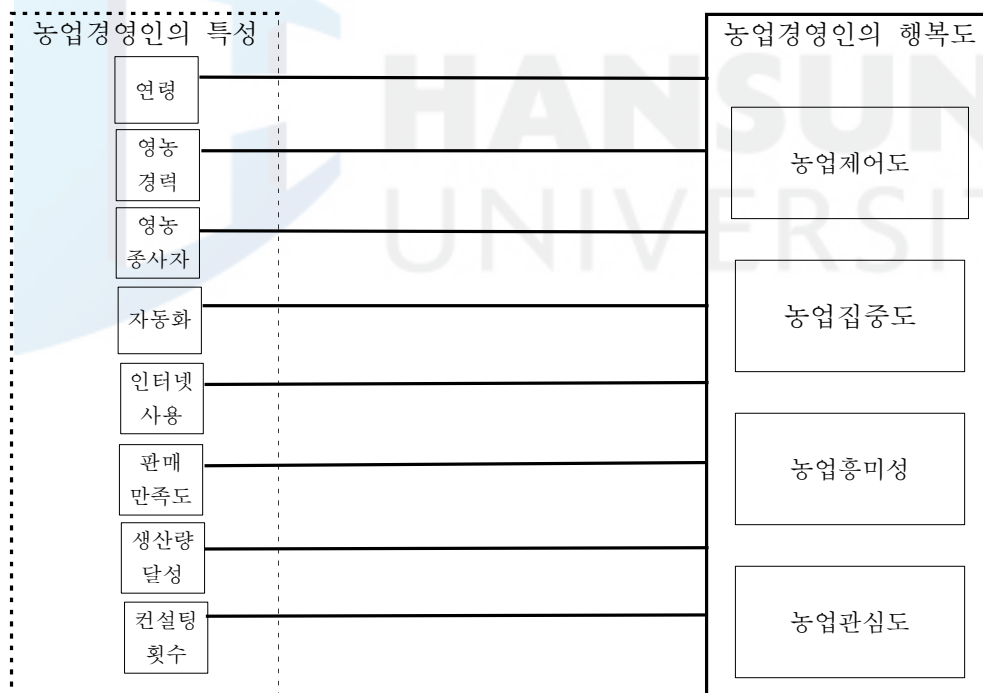


44) 이시훈(1999), “인터넷 광고 효과의 인과적 모델에 관한 연구: Flow 경험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제 3 장 연 구 방 법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를 칙센미하이의 Flow 모형을 토대로 측정해보고 농업경영인의 다양한 사회통계학적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검증된 행복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Flow모형의 각 차원인 제어도, 집중도, 흥미성, 관심도의 설문문항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농업경영인의 특성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각 항목들을 측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농업경영인들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을 농업경영인의 연령, 영농경력, 영농종사자, 자동화, 인터넷 사용시간, 판매만족도, 생산량 달성, 컨설팅 횟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형태를 그림으로 요약한 것은 위의 <그림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Flow 모형을 이용한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를 다양한 사회통계학적 구분에 따라 살펴보고,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구 분	연구가설의 내용
가설 1	농업 경영인의 행복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의 구성요소로 검증할 수 있다..
가설 2	농업경영인의 사회통계학적 구분에 따라 행복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1	농업경영인의 연령에 따라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2	농업경영인의 영농경력에 따라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3	농업경영인의 영농종사자수에 따라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2-4	농업경영인의 영농자동화 정도에 따라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2-5	농업경영인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6	농업경영인의 판매만족도에 따라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7	농업경영인의 생산량달성 여부에 따라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8	농업경영인의 컨설팅 횟수에 따라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Flow 모형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Flow 모형에서 측정지표로 사용되는 제어도, 집중도, 흥미도, 관심도를 농업경영인에 대입하여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지 구성을 설계하였다.

1. 제어도(Control)

제어도(Control)란 자신의 제어하에 농업경영에 대한 정보습득, 농업경영 전반, 전략, 농기구 사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이다.

웹스터와 트레비노(Webster & Trevino, 1993)는 Flow 모형을 이용하여 주관적 만족도의 측정을 위해 경영 대학원생 133명과 회계업 종사자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제어도를 포함한 추출된 4개의 요인을 신뢰성 검증한 결과 .82의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웹스터와 트레비노의 설문지를 중심으로 주관적 만족도를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로써 용어를 일치시키고, 영농경영인의 특성에 맞게 일부 설문 문항을 변경하여 농업경영인의 제어도를 측정하는 문항 q1과 q6을 리커트 5점 척도의 등간척도로 구성하여 포함하였다.

2. 집중도(Attention focus)

집중도(Attention focus)란 농업경영인이 다른 일에 신경쓰지 못할 만큼 농업에 집중하고 있는 정도로써 농업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써, 농업과 관련한 교육에 대한 집중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의하였다.

아가왈과 카라한나(Agarwal & Karahanna, 2000)의 연구에서는 이를 집중적 몰두(Focused immersion)라 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집중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사용하고 있었다.

가니(Ghani, 1994)는 대학생 500명과 직장인 140명을 대상으로 한 몰입도에 관한 연구에서 Concentration이라 하여 집중을 주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었으며, .92의 높은 신뢰계수를 확보하고 있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니의 설문 문항을 차용하여 농업경영인의 행복도 중 집중도를 측정하는 리커트 5점 척도의 등간척도로 구성된 문항 q4, q9, q10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 흥미성(Curiosity)

흥미성(Curiosity)이란 농업경영인이 농업을 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용자의 주관적 흥미성을 자극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농업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발휘하며, 농업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흥미성을 이용자의 행복도 및 몰입도를 측정하는 측정지표로써 사용하고 있는 연구로는 아가왈과 카라한나(Agarwal & Karahanna, 2000)의 연구가 있으며, 트레비노와 웹스터(Trevino & Webster, 1992)의 연구에서 역시 Flow 모형을 기초로 한 주관적 만족도의 측정에서 의료사업 종사자 287명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뢰계수는 .72로 검증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그 중 흥미성(Curiosity)을 측정지표로써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흥미성을 주관적 만족을 측정하는 측정도구의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트레비노와 웹스터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인의 내용에 맞게 영농에 대한 흥미성에 관한 문항으로 수정을 가하였으며, q2, q3, q5의 세 개의 리커트 5점 등간척도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4. 관심도(Intrinsic interest)

관심도(Intrinsic interest)는 농업경영인들이 농업에 임하는 동안 내재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관심의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농업 교육 및 농업에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심리적 강도를 의미한다.

웹스터와 마토치오(Webster & Martocchio, 1995)는 FLow 모형을 이용한 행복도의 측정에서 국립대학교 직원 143명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한 설문지 분석의 결과 .85로 신뢰도가 검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관심도를 측정지표로써 연구분석에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관심도를 측정지표로써 설문에 포함하였으며 웹스터와 마토치오의 설문문항을 차용하여 관심도를 측정하는 q7, q8의 두개의 문항을 리커트 5점의 등간척도로 구성하였다.

제 4 절 표본의 선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농업경영인의 행복도 측정을 위해 현재 농업 및 농업관련 산업에서 종사중인 농업경영인을 무작위 추출하여 2010년 10월 1일부터 2010년 11월 15일까지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14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불성실 응답자 및 결측값이 지나치게 많은 응답자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00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추가로 2010년 11월 21일부터 2010년 11월 27일까지 수집된 128부의 설문지를 합산하여 총 228부의 설문지 데이터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각 측정문항의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제어도, 집중도, 흥미성, 관심도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각 행복도의 구성요소별로 농업경영인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도의 크기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통계의 처리는 SPSS ver 18. 을 통하였으며, 연구자의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여 $p < .05$ 보다 높은 유의확률을 보이는 통계값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3-1] 표본의 선정

구 분	수 집 방 법	비 고
수집기간	1차: 2010. 10.01 ~ 11.15 2차: 2010. 11.21 ~ 11.27	-
분석대상	1차: 무작위 추출된 전국의 농업경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회수된 설문지 143부 중 100부를 데이터로 선정. 2차: 추가 설문을 실시하여 수집된 대상 128부를 데이터로 선정	무작위 추출 및 pre-test를 통한 설문지 검증 실시
분석데이터	N=228 (Likert 5점 등간척도의 설문지)	연구자의 유의수준 $p < .05$

제 5 절 설문문항의 내적일관성 분석결과

본 연구는 flow모형을 통한 농업경영인의 행복도 측정 모형에 관한 것으로, flow 모형의 측정요소인 제어도, 집중도, 흥미성, 관심도 4개의 요소를 바탕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농업경영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항목의 내용을 농업과 연관되도록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설문지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고 있는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일반적으로 내적일관성은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Cronbach's α 계수를 분석하여 신뢰계수 α 의 값이 .600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검증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800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은 수준으로 파악 가능하다.

본 설문의 문항들을 토대로 측정도구의 신뢰계수를 분석한 결과 Flow 모형의 제 1 구성요소인 제어도에 대해 측정하고 있는 설문문항 q1, q6의 두개 문항에 대한 신뢰계수가 .606으로 나타나 신뢰계수가 검증되고 있었다. 또한 집중도에 대해 묻고 있는 문항 q4, q9, q10에 있어서도 신뢰계수의 값이 .662로 신뢰성이 검증되고 있었으며, 흥미성에 대해 측정하는 q2, q3, q5에 있어서도 .752의 신뢰계수가 나타나 신뢰성이 검증되었으며, 마

지막으로 관심도에 대해 측정하는 문항 q7, q8에 있어서도 신뢰계수의 값이 .758로 신뢰성이 검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모든 항목에서 내적일관성 즉, 신뢰성이 검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 검증결과

측정변수		설문지 항목	신뢰계수
Flow의 4차원 측정모형 변수	제 어 도 (Control)	문항 Q1, Q6	.606
	집 중 도 (Attention Focus)	문항 Q4, Q9, Q10	.662
	흥 미 성 (Curiosity)	문항 Q2, Q3, Q5	.752
	관 심 도 (Intrinsic Interest)	문항 Q7, Q8	.758
사회통계 학적특성	연령, 영농경력, 영농종사자, 자동화 정도, 인터넷 사용시간, 판매만족도, 생산량 달성, 컨설팅 횟수	문항 S1, S2, S3, S4, S5, S6, S7, S8	-

제 4 장 연 구 결 과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사회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인 농업경영인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을 연령, 영농경력, 영농종사자수, 영농자동화 정도, 인터넷 사용시간, 판매만족도, 생산량 달성, 컨설팅 횟수에 따라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된 이들 집단별로 행복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서 농업경영인들이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다. 빈도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은 아래의 [표4-1]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농업경영인의 연령에 의한 구분에 있어서는 20대가 6명 2.6%, 30대가 31명 13.6%, 40대가 73명 32.0%, 50대가 91명 39.9%, 60대가 24명 10.5%, 70대가 3명 1.3%인 것으로 나타나, 5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체로 농업경영인은 40대 이상의 연령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농경력에 의한 구분에 있어서는 영농경력이 3년 이상된 집단은 38명 17.1%, 5년 이상이 34명 15.3%, 10년 이상이 59명 26.6%, 20년 이상이 52명 23.4%, 30년 이상이 39명 17.6%로 10년 이상 영농을 지속해 왔다는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상으로 오랫동안 영농을 해왔다는 집단도 영농경력이 10년 이하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조사대상자들은 영농경력이 오래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해당 영농업의 종사자수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는 1인 이상이라는 집단이 41명 18.4%, 2인 이상이 88명 39.5%, 3인 이상이 65명 29.1%, 5인 이상이 21명 9.4%, 10인 이상이 8명 3.6%로 나타나 대부분이 1인~2인 정도의 소규모로 영농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농을 컴퓨터 및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얼마나 자동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는 영농자동화를 하지 않았다는 집단이 83명 37.6% 였으

며, 농장일지의 관리까지 자동화가 되어있다는 집단이 116명 52.5%, 재무 관리의 부분까지 모두 영농 자동화가 되어있다는 집단이 22명 10.0%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의 영농 자동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농업경영인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구분에서는 하루 30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94명 45.0%, 1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집단이 68명 32.5%, 2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집단이 25명 12.0%, 3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집단이 22명 10.5%로 나타나 많은 농업경영인들이 인터넷을 최소 1시간 이상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부분 정보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농업경영인들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 가격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구분에 있어서는 매우 만족한다는 집단이 19명 8.3%, 만족한다는 집단이 89명 39.0%, 보통이라는 집단이라는 98명 43.0%, 만족하지 않는다는 집단이 22명 9.6%로 판매가격에 대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집단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집단보다 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업경영인이 최초 설정한 목표 생산량에 도달하였는지를 묻고 있는 생산량 달성에 있어서는 목표 생산량에 3년 연속 달성하였다는 집단이 64명 28.6%로 나타났으며, 2년 연속 달성했다는 집단이 54명 24.1%, 1년 달성하였다는 집단이 56명 25.0%,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집단이 50명 22.3%로 나타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농업경영인들이 컨설팅을 수진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물음에는 컨설팅을 3회 받았었다는 집단이 30명 13.2%였으며, 2회 받았던 경험이 있다는 집단이 27명 11.9%, 1회 받은 경험이 있다는 집단이 49명 21.6%, 컨설팅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집단이 121명 53.3%로 나타나고 있어 대다수의 농업경영인이 컨설팅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며 그 횟수가 2회 미만으로 아주 적은 컨설팅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빈도 분석의 결과는 전체 조사대상자 228명 중 결측값 및 무응답자, 불성실 응답자의 숫자를 제외한 합계를 토대로 빈도 및 비율을 분석

한 것이며 이를 통해 전체적인 표본의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있어서도 농업경영인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의 구분은 대체로 그 분포가 고르고 표본의 수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사회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수	비율(%)
연 령	20대	6	2.6%
	30대	31	13.6%
	40대	73	32.0%
	50대	91	39.9%
	60대	24	10.5%
	70대	3	1.3%
영농경력	3년이상	38	17.1%
	5년이상	34	15.3%
	10년이상	59	26.6%
	20년이상	52	23.4%
	30년이상	39	17.6%
영농종사자	1인이상	41	18.4%
	2인이상	88	39.5%
	3인이상	65	29.1%
	5인이상	21	9.4%
	10인이상	8	3.6%
영농자동화	하지않음	83	37.6%
	농장일지	116	52.5%
	재물관리	22	10.0%
인터넷사용	하루30분이상	94	45.0%
	1시간이상	68	32.5%
	2시간이상	25	12.0%
	3시간이상	22	10.5%
판매만족도	매우만족	19	8.3%
	만족	89	39.0%
	보통	98	43.0%
	만족하지않음	22	9.6%
생산량달성	3년 달성함	64	28.6%
	2년달성	54	24.1%
	1년달성	56	25.0%
	달성못함	50	22.3%
컨설팅횟수	3회받음	30	13.2%
	2회받음	27	11.9%
	1회받음	49	21.6%
	받지못함	121	53.3%

제 2 절 농업경영인의 행복도의 구성요소들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를 Flow 모형을 이용하여 농업경영인의 다양한 형태에 따른 행복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먼저 행복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인 Flow의 4개의 차원 제어도, 집중도, 흥미도, 관심도에 있어서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 Flow의 4개의 차원과 상관관계분석 결과

구 분		제어도	집중도	흥미도	관심도
제어도	상관계수	1			
	유의확률				
	N	228			
집중도	상관계수	.399(**)	1		
	유의확률	0.000			
	N	228	228		
흥미도	상관계수	.598(**)	.435(**)	1	
	유의확률	0.000	0.000		
	N	228	228	228	
관심도	상관계수	.557(**)	.606(**)	.447(**)	1
	유의확률	0.000	0.000	0.000	
	N	228	228	228	228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를 Flow의 4개의 차원에 있어서 제어도, 집중도, 흥미도, 관심도로 구분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위의 [표4-2]와 같다.

분석결과, 행복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측정지표들에 있어서 유의수준 $p < .01$ 수준에서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검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어도는 집중도와 상관계수의 값이 .399로 39.9%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흥미도와도 .598로 59.8% 만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관심도와도 .557로 55.7%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집중도에 있어서는 위에서 제어도와의 상관관계가 검증됨은 물론이며, 흥미도와도 .435의 상관계수가 나타나 43.5%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관심도와도 .606으로 60.6%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흥미도에 있어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어도 및 집중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검증되고 있었으며, 관심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447로 44.7%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관심도 역시 위의 모든 변수들과의 상관관계가 이미 검증되고 있어, 모든 변수들이 공통의 측정항목인 행복도를 대표하는 구성요소로써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어느 한 측정 변수의 증가에도 다른 모든 변수가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행복도가 증가하는 통계적인 관계가 검증되고 있었다.

제 3 절 농업경영인의 다양한 집단별 행복도의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연구가설의 설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농업경영인의 다양한 사회통계학적 구분에 따라 그들의 행복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행복도의 차이에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검증해보기 위해서 농업경영인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을 연령, 영농경력, 영농종사자, 영농자동화, 인터넷 사용시간, 판매만족도, 생산량 달성, 컨설팅 횟수의 8

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집단별 구분에 따른 행복도를 일원변량 분석(ANOVA)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1. 농업경영인의 연령에 따른 행복도의 검증결과

농업경영인의 연령에 따라서 행복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에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3] 연령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 검증결과

구 분		N	평균값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제어도	20대	6	8.0000	1.26491	2.905	0.015
	30대	31	7.8065	1.53665		
	40대	73	7.6301	2.03788		
	50대	91	7.5165	2.09954		
	60대	24	6.2917	2.25503		
	70대	3	5.0000	1.73205		
집중도	20대	6	10.0000	2.00000	0.790	0.558
	30대	31	11.1290	1.38424		
	40대	73	10.3562	2.74555		
	50대	91	10.8791	2.68260		
	60대	24	11.1667	3.05979		
	70대	3	10.0000	1.73205		
흥미도	20대	6	10.0000	1.78885	1.129	0.346
	30대	31	11.3871	2.59072		
	40대	73	10.6164	2.88497		
	50대	91	11.0220	2.64566		
	60대	24	10.3333	3.66733		
	70대	3	8.3333	2.30940		
관심도	20대	6	7.0000	1.54919	2.173	0.058
	30대	31	7.7742	1.72645		
	40대	73	7.4110	2.09388		
	50대	91	7.9560	1.86137		
	60대	24	7.1667	2.29682		
	70대	3	5.0000	2.00000		

분석결과, 농업경영인을 연령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행복의 구성요소는 제어도(F값 2.905, 유의확률 .01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구성요소인 집중도, 흥미도, 관심도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검증되지 않고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농업경영인의 행복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중 제어도는 20대 농업경영인이 가장 높은 평균값인 8.0000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30대 평균값 7.8065, 40대의 평균값 7.6301, 50대의 평균값이 7.5165, 60대의 평균값이 6.2917로 나타나 연령이 점차 높아질수록 제어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경영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농기구 및 교육자료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인프라에 대한 제어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통제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체적으로 농업경영인의 제어도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행복감도 낮아지고 있어, 고령화에 의한 제어도의 하락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2. 농업경영인의 영농경력에 따른 행복도의 검증결과

농업경영인의 영농경력에 따라서 행복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에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결과는 아래의 [표4-4]와 같다. 영농경력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를 분석함은 영농경력이 오래되어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있는 상태의 농업경영인 또는 영농경력이 오래되어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 등의 비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행복도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경력이 오래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여 이러한 경향성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4] 영농경력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 검증결과

구 분		N	평균값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제 어 도	3년이상	38	7.0789	2.04519	1.470	0.212
	5년이상	34	7.0882	1.89685		
	10년이상	59	7.6271	1.97308		
	20년이상	52	7.8654	2.13311		
	30년이상	39	7.1282	2.09234		
집 중 도	3년이상	38	10.6842	2.47261	0.230	0.921
	5년이상	34	10.6765	2.21182		
	10년이상	59	10.7966	2.23437		
	20년이상	52	10.5192	3.10907		
	30년이상	39	11.0256	2.71920		
흥 미 도	3년이상	38	11.0789	2.83207	0.873	0.481
	5년이상	34	11.0294	2.73568		
	10년이상	59	10.6610	2.91613		
	20년이상	52	11.0385	2.48889		
	30년이상	39	10.1026	3.11866		
관 심 도	3년이상	38	8.2105	1.39803	1.253	0.290
	5년이상	34	7.6471	1.51522		
	10년이상	59	7.4237	2.03591		
	20년이상	52	7.4423	2.41250		
	30년이상	39	7.3590	2.07094		

분석결과, 농업경영인을 영농경력이 얼마나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는 모든 행복의 구성요소인 제어도(유의확률 .212), 집중도(유의확률 .921), 흥미성(유의확률 .481), 관심도(유의확률 .290)에서 연구자가 설정한 유의수준인 $p < .05$ 보다 높은 유의확률이 관측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대체로 제어도는 영농경력이 30년 이상된 집단을 제외하면 경력이 오래된 집단일수록 제어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며, 30년 이상 영농경력을 가진 집단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흥미도와 관심도에 있어서는 대체로 영농경력이 오래된 집단일수록 흥미도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영농경력이 오래된 집단일수록 자신의 영농업에 대한 자기통제적 능력은 올라가지만 관심과 흥미, 집중에 있어서는 점차 그 값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본 분석을 통해서도 농업경영인의 영농경력에 따른 행복도의 검증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3. 농업경영인의 영농 종사자수에 따른 행복도의 검증결과

농업경영인의 영농 종사자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복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에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결과는 아래의 [표4-5]와 같다. 이러한 결과의 고찰을 통해서 최근 계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도시화 경향 속에서 이들의 종사자수가 변화함에 따라 행복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최근 영농업계의 변화를 고려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통계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5] 영농종사자수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 검증결과

구 분		N	평균값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제어도	1인이상	41	6.7805	2.31854	3.554	0.008
	2인이상	88	7.1705	1.91318		
	3인이상	65	7.9538	1.78912		
	5인이상	21	8.2381	2.02249		
	10인이상	8	7.6250	1.84681		
집중도	1인이상	41	10.2439	2.83532	1.400	0.235
	2인이상	88	10.5227	2.59078		
	3인이상	65	11.2769	2.22562		
	5인이상	21	10.5714	2.74903		
	10인이상	8	11.3750	2.87539		
흥미도	1인이상	41	10.5854	3.35392	0.464	0.762
	2인이상	88	10.7273	2.63804		
	3인이상	65	10.9077	2.55394		
	5인이상	21	11.3333	2.05751		
	10인이상	8	11.6250	3.77728		
관심도	1인이상	41	7.3659	2.27768	1.193	0.315
	2인이상	88	7.3977	1.89700		
	3인이상	65	7.9846	1.75439		
	5인이상	21	7.8095	2.22753		
	10인이상	8	8.1250	1.88509		

분석결과,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를 구성하는 구성요인 중 제어도(F값 3.554, 유의확률 .008)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으나, 집중도(유의확률 .235), 흥미도(유의확률 .762), 관심도(유의확률 .315)에 있어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통계적 차이가 검증되고 있는 제어도에 있어서는 1인 영농체제를 가진 농업경영인 집단의 경우 6.7805로 가장 낮은 제어도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영농업 및 기계의 운영과 판매 등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충족되고 있지 않아 제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영농 종사자 수가 2인의 경우에는 제어도의 평균값이 7.1705, 3인 이상인 경우에 7.9538, 5인 이상인 경우 8.2381로 가장 높은 제어도를 나타내었으며, 10인 이상의 경우 7.6250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5인 이상의 영농 종사자수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의 경우 가장 제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농업경영인을 영농 종사자수에 의해 구분한 경우 이들의 행복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추가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통계적인 검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집중도와 흥미도, 관심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집중도, 흥미도, 관심도 모두에서 10인 이상의 영농 종사자수를 가진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통계적 차이가 검증되고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결과에는 충분한 수의 영농 종사자가 확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행복도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도시화 등을 통해서 농업경영인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농업과 관련된 해당 산업에 대하여 필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산업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이러한 현상이 농업경영인들의 행복과 농업에 대한 집중, 관심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활용 가능할 것이다.

4. 농업경영인의 영농자동화 정도에 따른 행복도의 검증결과

농업경영인의 영농 자동화 정도에 따라서 그들의 행복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에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결과는 아래의 [표4-6]와 같다. 이러한 결과의 고찰을 통해서 최근 계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도시화 경향 속에서 이들의 종사자수가 변화함에 따라 행복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최근 영농업계의 변화를 고려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통계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6] 영농자동화 정도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 검증결과

구 분		N	평균값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제어도	하지않음	83	6.9880	2.26044	3.433	0.034
	농장일지	116	7.7500	1.88760		
	재무관리	22	7.5455	1.84461		
집중도	하지않음	83	10.6024	3.00382	0.292	0.747
	농장일지	116	10.8793	2.21126		
	재무관리	22	10.8636	2.74808		
흥미도	하지않음	83	10.2530	2.91273	2.773	0.065
	농장일지	116	11.1293	2.80537		
	재무관리	22	11.3182	2.16875		
관심도	하지않음	83	7.3976	2.27360	1.130	0.325
	농장일지	116	7.8103	1.75407		
	재무관리	22	7.4545	1.96946		

분석결과,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를 구성하는 구성요인 중 제어도(F값 3.554, 유의확률 .008)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으나, 집중도(유의확률 .235), 흥미도(유의확률 .762), 관심도(유의확률 .315)에 있어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영향력이 검증되고 있는 제어도의 경우 영농 자동화를 전혀 도입하지 않았다는 농업경영인의 제어도가 평균값 6.9880으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농장일지까지 영농자동화를 도입하여 컴퓨터를 통한 네트워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의 평균값이 7.7500로 가장 높은 제어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재무관리의 수준까지 모두 영농자동화를 이루었다는 농업경영인의 경우가 평균값 7.5455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경영인이 재무관리 또는 농장일지까지 영농자동화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영농자동화를 전혀 구축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제어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동화를 통한 관리의 효율화 그리고 컴퓨터를 통한 관리가 도입되는 것이 영농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컨트롤 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농업인의 행복도에 대체로 영농 자동화가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행복도의 구성요소인 집중도, 흥미도, 관심도에 있어서는 영농자동화를 도입한 농업경영인의 전반적인 평균값이 영농자동화를 도입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의 평균값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기초 통계분석을 통해서도 대체로 영농자동화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경우보다 행복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의 차후의 연구방향에서 영농 자동화 및 정보화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시사점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5. 농업경영인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행복도의 검증결과

농업경영인의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서 그들의 행복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에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결과는 아래의 [표4-7]과 같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농업경영인의 인터넷 사용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농업경영인의 인터넷 사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복의 구성요소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농업경영인의 정보화 정도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표 4-7]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 검증결과

구 분		N	평균값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제어도	하루30분이상	94	7.2340	2.06572	2.107	0.101
	1시간이상	68	7.9265	1.70439		
	2시간이상	25	7.4000	1.68325		
	3시간이상	22	7.9091	1.79706		
집중도	하루30분이상	94	10.5957	2.72905	0.275	0.843
	1시간이상	68	10.7941	2.27615		
	2시간이상	25	10.8800	2.42074		
	3시간이상	22	11.0909	2.65310		
흥미도	하루30분이상	94	10.3830	2.78671	1.702	0.168
	1시간이상	68	11.3235	2.38428		
	2시간이상	25	10.8400	2.80891		
	3시간이상	22	11.0909	2.97464		
관심도	하루30분이상	94	7.3830	2.04312	1.579	0.196
	1시간이상	68	8.0000	1.71037		
	2시간이상	25	7.6800	1.84210		
	3시간이상	22	8.0000	2.09307		

분산분석의 결과,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소인 제어도(유의확률 .101), 집중도(유의확률 .843), 흥미도(유의확률 .168), 관심도(유의확률 .196)에서 연구자가 설정한 유의수준인 $p < .05$ 보다 높은 유의확

률이 나타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평균의 차이에 통계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흥미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어도, 집중도, 관심도의 모든 항목에서 농업경영인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장 높은 평균값이 나타나고 있어, 인터넷 사용이 적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행복도를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평균차이 검증을 통해 검증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써는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 농업경영인의 판매가격 만족도에 따른 행복도의 검증결과

농업경영인의 판매가격 만족도에 따라서 그들의 행복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에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결과는 아래의 [표4-8]과 같다. 여기서 농업경영인의 판매가격 만족도라 함은 농업경영인의 영농 활동의 결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가격을 뜻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제품의 판매가격이 농업경영인이 인식하기에 매우만족하고 있는지 또는 만족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보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불만족하고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행복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가격이 좋은 판정을 받고 있고 가치가 인정받고 있을 때 판매자의 행복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인식으로 받아들여지나, 농업경영인에게 있어서 이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국내 연구가 부족하고 행복의 구성요소별로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실제 가격 정책의 입안 및 제품군별 비교를 통한 연구로 진행하는 등 향후 연구방향에의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판매가격 만족도의 차이에 따라 행복도의 차이가 검증됨을 확인한다면 그 차이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농업경영인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의 종류 및 규모별 비교를 통한 행복도의 차이를

검증하는 추가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표 4-8] 판매가격 만족도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 검증결과

구 분		N	평균값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제어도	매우만족	19	9.1579	1.21395	11.932	0.000
	만족	89	7.9551	1.60192		
	보통	98	6.8469	2.16510		
	만족하지않음	22	6.5455	2.36497		
집중도	매우만족	19	12.0000	1.66667	2.277	0.081
	만족	89	10.8427	2.10464		
	보통	98	10.5612	2.78829		
	만족하지않음	22	10.0455	3.63157		
흥미도	매우만족	19	12.5789	1.70996	9.201	0.000
	만족	89	11.5169	2.44537		
	보통	98	10.1735	2.84306		
	만족하지않음	22	9.2273	3.44939		
관심도	매우만족	19	8.5789	1.89490	3.865	0.010
	만족	89	7.9213	1.72036		
	보통	98	7.2347	2.05993		
	만족하지않음	22	7.1818	2.38320		

분석결과, 농업경영인이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구분에 따라서 그들의 행복도는 제어도(F값 11.932, 유의확률 .000), 흥미도(F값 9.201, 유의확률 .000), 관심도(F값 3.865, 유의확률 .010)에서 연구자가 설정한 유의수준인 $p < .05$ 보다 낮은 유의확률이 나타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고 있었다. 반면 집중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우선 제어도에 있어서는 자신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가격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는 경우에 제어도가 평균값 9.1579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하

고 있는 경우의 평균인 7.9551과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판매가격에 대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제어도의 평균값이 6.8469였으며, 판매가격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낮은 평균값인 6.5455를 나타내고 있어 판매가격에 대해 더 많이 만족할수록 제어도와 관련한 행복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그 차이가 검증되고 있는 흥미도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는 제품의 판매가격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는 경우 흥미도가 가장 높은 평균값 12.5789를 나타내고 있었고, 역시 순서대로 만족하는 경우가 11.5169,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0.1735, 만족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9.2273으로 가장 낮았다.

행복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관심도에 있어서도 판매가격의 만족도에 따라 행복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판매가격에 매우만족하고 있는 경우 관심도의 평균이 8.5789로 역시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평균값 7.9213,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7.2347, 만족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7.1818로 가장 낮았다.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고 있는 행복의 구성요소 제어도, 흥미도, 관심도의 경우 모두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가격 만족도에 따라서 행복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판매가격에 매우만족하고 있는 경우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의 평균의 편차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농업경영인이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의 가격이 일정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만족스러운 가격에 판매가 되어야만 행복도를 느끼고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거나 흥미가 높아지거나 능동적인 제어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면 자신의 제품이 자신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치로 평가받아 판매가격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엔 행복도가 무척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행복에 관련한 제품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농업경영인에 대한 정부의 판매가격 보조금 지원이나 가격 하한선을 통한 판매가격의 조절 등 가격정책의 도입이 행복도에 무척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가격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이 농업

경영인의 행복도를 개선하는데 비교적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7. 농업경영인의 목표생산량 달성에 따른 행복도의 검증결과

농업경영인이 당초에 목표한 생산량에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행복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에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결과는 아래의 [표4-9]와 같다.

[표 4-9] 목표생산량 달성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 검증결과

구 분	N	평균값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제어도	3년 달성함	64	8.3281	1.67194	6.620 0.000
	2년달성	54	7.5556	1.98738	
	1년달성	56	7.0357	2.04463	
	달성못함	50	6.8800	2.11544	
집중도	3년 달성함	64	10.6406	2.78526	0.788 0.502
	2년달성	54	11.1667	2.22125	
	1년달성	56	10.8214	2.72435	
	달성못함	50	10.4200	2.53216	
흥미도	3년 달성함	64	11.6719	2.49479	4.747 0.003
	2년달성	54	11.2963	2.59629	
	1년달성	56	10.2143	2.66092	
	달성못함	50	10.1000	3.12495	
관심도	3년 달성함	64	7.9063	1.83198	0.923 0.430
	2년달성	54	7.5741	1.95807	
	1년달성	56	7.7143	2.06013	
	달성못함	50	7.3000	2.09226	

분석결과, 농업경영인이 자신이 당초 목표한 생산량에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생산량에 달성하고 있는지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는 제어도(F값 6.620, 유의확률 .000)와 흥미도(F값 4.747, 유의확률 .00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집중도와 관심도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설정한 유의수준인 $p < .05$ 보다 높은 유의확률이 발견되어 통계적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통계적 차이가 검증되고 있는 제어도에 있어서는 농업경영인이 목표한 생산량에 3년 연속으로 달성하였다는 경우에 제어도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8.3281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2년 연속 달성하였다는 경우 7.5556, 1년 달성하였다는 경우 7.0357, 목표했던 양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6.8800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도에 있어서도 3년 연속으로 목표 생산량에 달성하였다는 경우 흥미도의 평균값이 11.6719로 가장 높았으며, 2년 연속 달성하였다는 경우가 11.2963이었으며, 1년 달성하였다는 경우가 10.2143,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경우가 평균값 10.1000으로 가장 낮은 흥미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통계적인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으나 농업경영인의 관심도에 있어서도 목표 생산량에 더 오랜기간 달성하고 있을 경우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는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농업경영인이 목표했던 생산량에 달성하는 경우가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행복도를 나타내며, 나아가 더 오랜기간 목표 생산량에 달성하고 있을수록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농업경영인이 자신이 목표한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농기계 또는 각종 컨설팅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농업경영인의 행복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동시에 전략적으로 목표 생산량을 자신의 역량과 자원에 맞게 결정하는 것도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 할 수 있다.

8. 농업경영인의 컨설팅 수진횟수에 따른 행복도의 검증결과

농업경영인이 컨설팅을 수진한 횟수에 따라서 그들의 행복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에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결과는 아래의 [표4-10]과 같다. 농업경영인에 있어서 컨설팅은 일반적으로 생산관리(생산성 증대를 위한 프로세스 혁신 및 품종개량 등 품질관리, 원가절감을 위한 원가관리 등을 포함), 경영컨설팅(경영의 효율화, 영농 자동화의 도입 등),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자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기업에 제공되는 컨설팅 보다 컨설턴트와 농업경영인의 친밀한 관계가 요구되어진다. 농업경영인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소인원으로 생산부터 관리 마케팅 판매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적은 인원이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을 통한 효율화 및 산출의 극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표 4-10] 컨설팅 수진 횟수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 검증결과

구 분		N	평균값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제어도	3회받음	30	7.6000	1.88643	0.944	0.420
	2회받음	27	6.8519	2.52227		
	1회받음	49	7.6327	2.27938		
	받지못함	121	7.4380	1.87035		
집중도	3회받음	30	11.3333	1.86313	1.230	0.299
	2회받음	27	10.0370	3.14375		
	1회받음	49	10.8367	2.40959		
	받지못함	121	10.6942	2.66096		
흥미도	3회받음	30	11.7333	2.19613	1.937	0.124
	2회받음	27	9.9630	3.29897		
	1회받음	49	10.6735	2.88233		
	받지못함	121	10.8347	2.79984		
관심도	3회받음	30	7.8000	1.71001	1.145	0.332
	2회받음	27	7.0000	2.71746		
	1회받음	49	7.8367	1.81827		
	받지못함	121	7.6033	1.93855		

분석의 결과, 컨설팅을 수진한 횟수에 의한 구분에 있어서는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소인 제어도(유의확률 .420), 집중도(유의확률 .299), 흥미도(유의확률 .124), 관심도(유의확률 .332)에서 연구자가 설정한 유의수준인 $p < .05$ 보다 높은 값의 유의확률이 나타나고 있어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컨설팅을 수진한 횟수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결과이나, 단순한 평균의 비교를 통해서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데는 농업경영인에 대한 컨설팅과 행복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기에 충분하다.

즉, 집중도와 흥미도의 경우와 같이 농업경영인에 대한 컨설팅이 3회 정도 제공되었을 때 가장 높은 집중도와 흥미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모든 집단에서 특징적으로 컨설팅을 2회 수진한 경우에 제어도, 집중도, 흥미도, 관심도가 모두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는 점은 괄목할 만한 분석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제공된 컨설팅의 종류와 컨설팅 내용, 그리고 그 성과와 연계하여 분석이 필요한 향후의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가설의 검증결과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인 제어도, 집중도, 흥미도, 관심도가 각 변수들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농업경영인의 다양한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행복도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를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설계함에 있어 최초에 설정하였던 연구가설에 대해 다음의 [표4-11]과 같이 검증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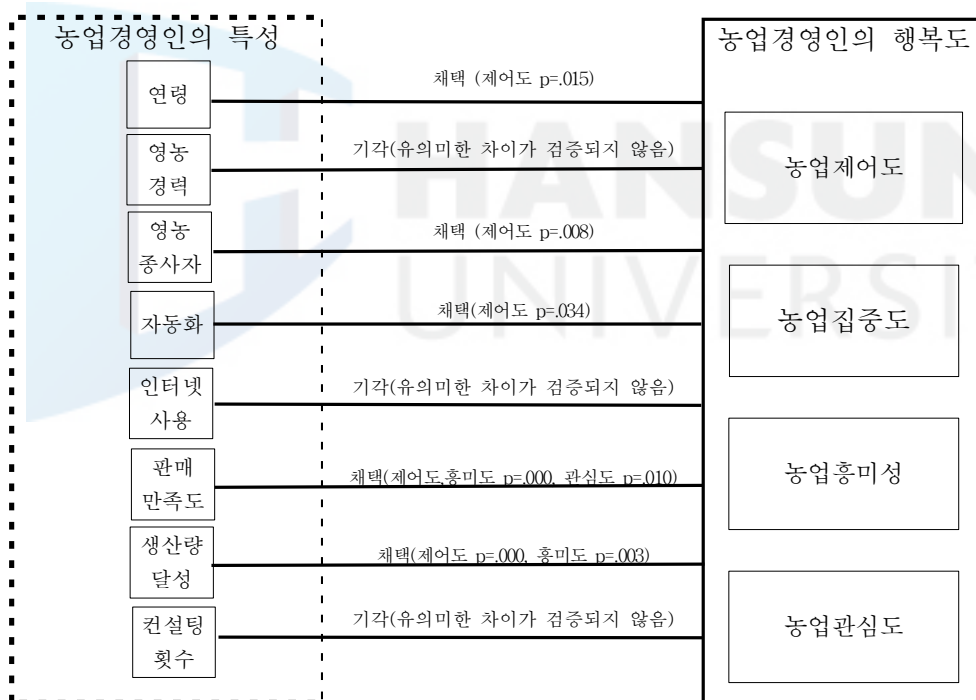
[표 4-11] 가설의 검증결과

구 분	연구가설의 내용	검증결과	채택여부
가설 1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의 구성요소로 검증할 수 있다.	$p < .01$ 에서 모든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검증됨	채택
가설 2	농업경영인의 사회통계학적 구분에 따라 행복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
가설 2-1	농업경영인의 연령에 따라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제어도 $p = .015$	채택
가설 2-2	농업경영인의 영농경력에 따라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	기각
가설 2-3	농업경영인의 영농종사자수에 따라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제어도 $p = .008$	채택
가설 2-4	농업경영인의 영농자동화 정도에 따라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제어도 $p = .034$	채택
가설 2-5	농업경영인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	기각
가설 2-6	농업경영인의 판매만족도에 따라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제어도 $p = .000$ 흥미도 $p = .000$ 관심도 $p = .010$	채택
가설 2-7	농업경영인의 생산량달성 여부에 따라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제어도 $p = .000$ 흥미도 $p = .003$	채택
가설 2-8	농업경영인의 컨설팅 횟수에 따라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	기각

가설의 검증결과,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는 그 모든 구성요소인 제어도, 집중도, 흥미도, 관심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어 해당 연구가설인 가설1은 채택되었다.

또한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농업경영인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 있어서는 농업경영인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였을 경우 제어도에 있어서만 유의확률 .015로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고 있었으며, 농업경영인의 영농경력에 따른 구분에서는 행복도의 모든 구성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농업경영인의 영농 종사자수에 있어서도 제어도가 유의확률 .00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영농자동화 정도에 따른 분석에서도 역시 제어도가 유의확률 .034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구분에는 다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으며, 농업경영인의 제품에 대한 판매가격 만족도에 따른 구분에서는 제어도(유의확률 .000), 흥미도(유의확률 .000), 관심도(유의확률 .0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고 있었으며, 목표 생산량 달성여부에 따른 구분에는 제어도(유의확률 .000)와 흥미도(유의확률 .003)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고 있었다. 반면 농업경영인의 컨설팅 수진 횟수에 따른 구분에서는 모든 행복의 구성요소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통계적 차이가 검증되고 있는 요소에 해당하는 연구가설인 2-1, 2-3, 2-4, 2-6, 2-7은 채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가설 2-2, 2-5, 2-8은 기각되었다.



<그림 4-1> 가설의 검증결과 연구모형

제 5 장 결 론 및 제 언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를 Flow모형에 따라 구성요소를 제어도, 집중도, 흥미도, 관심도로 구분하여 측정한 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에서 특정 변수의 값이 증가하면 다른 모든 변수들이 영향을 받아 함께 그 값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가 검증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Flow의 4차원 구성요소를 통해서 행복도라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며, 제어도, 집중도, 흥미도, 관심도가 모두 농업경영인의 행복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로써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둘째, 농업경영인의 사회통계학적 구분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령에 따른 구분에 있어서는 행복도의 구성요소 중 제어도가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영농 종사자수에 따른 구분에서도 역시 제어도가 통계적 차이를 보였고, 영농 자동화 정도의 차이에 따른 구분에서 역시 제어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고 있었다. 판매가격 만족도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제어도, 흥미도, 관심도가 통계적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목표했던 생산량의 달성여부에 따라서는 제어도와 흥미도 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었다. 반면 농업경영인의 영농경력과 인터넷 사용시간, 컨설팅을 받은 횟수의 차이에 따른 구분에 있어서는 행복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경영인의 행복도 측정과 향후 행복도 측정에서 이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제 2 절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 농업경영인의 분포는 계속되는 도시화 현상과 이농현상에 의해서 20대, 30대의 젊은 농업경영인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인 고령자 집단의 분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시 집중화 현상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발과 성장 위주의 정책을 시행해 왔던 우리나라의 산업고도화 전략과 성장전략의 영향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농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계속해서 외면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농업경영인의 경영이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등과 결합하면서 소품종 대량생산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어 생산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수익구조가 다원화되면서 수익이 증가하는 등 점차 농업 전반의 산업구조가 변화를 보이고 있고, 최근의 FTA 조약체결 등에 의한 농업관련 이슈들이 사회적으로나 국민적으로나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농업의 과학화, 자동화, 정보화 등의 다양한 측면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농업경영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속에서 본 연구는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를 측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는 바이다.

첫째, 20대의 젊은 농업경영인이 50대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령인 농업경영인에 비교하여 농업에 대한 능동적이고 자기 통제적인 역량 및 농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고 정보를 제어하며, 농기계에 대한 이해 및 조작능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령자 농업경영인에 대한 행복도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제어도(Control)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가령 고령자 농업경영인들에게 자신들이 경작중인 작물 혹은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관련 농기계를 잘 다룰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영농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 자기주도적인 의사결정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대체로 영농 종사자의 수가 10인 이상으로 많은 집단에서 영농 경영인의 제어도와 관련한 행복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농업의 분야별 적

정 인원을 찾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농촌을 빠져나가고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농업의 중요성과 수익에 대한 이점을 홍보함으로써 다시 농촌으로 젊은 인력들이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귀농 프로그램, 농업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자발적으로 농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변화된 농업 패러다임과 선진화된 농업의 기술이 새로운 농업경영인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농 종사자수의 부족은 현재로써 가장 시급한 농업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고려가 이루어지는 등 다차원적인 문제 해결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농업경영인의 영농자동화의 수준 및 영농자동화 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관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체로 영농자동화를 통해 자신의 농업 프로세스 전반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의 농업경영인의 제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들의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영농자동화가 도입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영농자동화를 농업경영인이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도입 및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전문가를 지원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관리, 자동화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등의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판매가격의 만족도가 농업에 대한 집중도를 제외한 모든 행복의 구성요소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고 있어,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자신들이 평가하고 있는 적절한 수준의 가치와 투입한 노력에 맞는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가를 보조금으로써 지원하거나 판매가 하한선을 지정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범정부적으로는 물가의 조정 및 수입산 농작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의 도입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업경영인들이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농업

경영인의 행복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농업경영인들이 자신이 가진 인프라와 영농 프로세스를 점검받고 이를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을 예측하고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영농지식 및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목표 달성량을 늘려나갈 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이러한 정책적 제언은 모두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를 Flow의 모형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이를 농업경영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서 비교해 봄으로써 도출되고 있는 시사점이다. 그러나 Flow 모형은 미국내 환경과 문화의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되고 고안되었던 모델로써 아직 국내사례에의 도입이 충분하지 않아 실증분석 및 사례연구를 통한 검증의 절차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경영인의 행복도를 좀 더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방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국내 농업경영의 환경에 맞게끔 개발하거나, 발굴하려는 노력이 향후의 연구에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복도에 관한 연구가 현재의 행복도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상태를 예측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김사균(2006), “농업경영비즈니스 과정을 통한 우수농업경영체 육성방안” 『한국농촌지도학회』 13권 2호, pp.277-286
- _____(2005), “우수농업경영체 발굴육성 전략의 발전적 제언”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2권 2호, pp.243-255
- 김미영(2008), “학습자의 사전지식, 인지부하, 몰입, 학습성취도 간의 관계 규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석(2007), “농업법인의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농촌경제』 제30권, pp.105-126
- 김정호(1999), “농업법인의 경영체 성격에 관한 고찰 ” 『농촌경제』 22권, pp.73-86
- 박차라(2009), “촉진적 상호작용이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NintendoWii를 이용한 단체응원시스템”, 『한국경영정보학회』, 2009 춘계학술대회, 그린IT와 경제위기 극복, pp.811-816.
- 방윤정(2010), “진천수박 명품화를 위한 농가경영진단과 전략과제 발굴” 『농업경영』, 정책연구 제37권 제1호, pp.88-112
- 백민석(2009), “경북의 농업경영인 육성정책 및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17.
- 서종석(2009), “고소득 농업경영체의 성공요인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50권 3호, pp.19-35
- 손지희(2009), “몰입경험의 교육적 가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찬주(2008), “농업경영자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1권 4호, pp.1809-1824

- 이보미(2006), “온라인에서의 Flow와 여행상품 소비자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시훈(1999), “인터넷 광고 효과의 인과적 모델에 관한 연구: Flow 경험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철희(2003), “벤처농업의 경영실태분석 및 육성전략”, 『농업경영』, 정책연구 제30권 2호, pp.355-372
- 이형룡(2006),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 - 국내 K항공사를 중심으로”, 『한국관광레저학회』, 관광레저연구, Vol.18(3), pp.99-119.
- 이효선(2008), “Flow 유형이 휴대폰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동욱(1999), “농업경영자능력의 요인분석”,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보고서』, pp86-100
- 하은경(2010), “디지털 미디어에 의한 공간체험의 몰입구조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용석(1998), “웹 이용과정에서 플로우 형성에 관한 이론적 모델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농업경영 연구원, <http://www.abi.re.kr>
- 농업경영정보화 지원시스템, <http://amis.rda.go.kr>
-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http://www.kaff.or.kr>

[해 외 문 헌]

- Agarwal, R, and E. Karahanna, (2000), Time flies when you're having fun: Cognitive absorption and beliefs about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MIS Quart*, Vol.24, pp.665-694.
- Csikszentmihalyi, M.,(1977), The ecology of adolescent activity and experi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6(3), pp.281-294.
- _____.(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pp.8-15.
- Csikszentmihalyi, M and Geirland, J.(1996). Go With The Flow. *Wired Magazine*. Vol.4, Issue. 9, pp.47-49.
- Csikszentmihalyi, N., Mihalyi and Rathunde, Kevin.(1992). The Measurement of Flow in Everyday Life: Toward a Theory of Emergent Motivation. *Development al Perspectives on Motivation*, pp.57-97.
- DeCharms, R., and M S Muir, Motivation: Social Approach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29, pp.91-113.
- Duval, & Wicklund, (1972), A theory of objective self awareness, *Academic Press*, pp.12-16.
- Edward, L. Deci, Richard M. Ryan,(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pp.3-4.
- Ellis, Gary D. and Voekl, Judith E.(1994). Measurement and Analysis Issues with Explanation of Variance in Daily Experience Using the Flow Model.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26, No.4, pp.337-356.
- Fenigstein, A. and Scheier, M., F. and Buss,(1975), Arnold H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3(4), pp.522-527.
- Ghani, J. A. and Supnick., R. and Rooney., P.,(1991), The experience of flow in computer-mediated and in face-to-face groups, *Proceedings of the twel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pp.6-10.
- Ghani, Jawaid A.(1994). Flow in Human-Computer actions : Testofa Model, Perspective on Human computer Interaction, pp.291-311.
- Ghani, Jawaid A. and Satish P. Deshpande (1994), "Task Characteristics and the Experience of Optimal Flow in Human-Computer Interact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Vol.128(4), pp.381-391.
- Hoffman, D.L. and T.P. Novak.(1996). Marketing in Hypermedia Computer-Mediated Environments: Conceptual Foundations, *Journal of Marketing*, Vol. 60, pp.50-68.
- _____,(1997), Measuring the Flow Experience Among Web Users, Vanderbilt University, pp.9-11.
- _____,(2000), Measuring the customer experience in online environments: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Marketing Science*, Vol.19(1), pp.22-42.
- Maslow. A. H.(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pp.15-17.
- Massimini, Fausto and Massimo Carli (1988), The Systematic Assessment of Flow in Daily Exper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88-306.
- Nakamura, J. (1988), "Optimal Experience and the Uses of Tal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19-326.
- Novak, Thomas P. and Donna L. Hoffman.(1996). New Metrics for New

- Media: Toward the Development of Web Measurement Standards", *The Journal of Marketing*, Vol.60, pp.50-66.
- Novak, T. P., & D., L. Hoffman and Yung., (1998), Modeling the Structure of the Flow Experience Among Web Users, Paper prepared for Marketing Science and the Internet Mini-Conference, MIT.
- Privette, G. and Bundrick, C.,(1987), Measurement of experience: Constructs and content validity of the experience questionnair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65, pp.315 - 332.
- Trevino, L.K & Webster, J.(1992). Flow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search*, Vol. 19(5), pp.539-573.
- Webster, Jane.(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fulness of Computer Interactions and Employee Productivity. Desktop Information Technology, K.M.Kaiser and H.J.Oppell and(ed.),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
- Webster, J and Martocchio, J.(1995). The Differential Effects of Software Training Previews on Training Outcomes." *Journal of Management*, Vol. 21(4), pp.757-787.
- Webster, J. and Trevino., K. and Ryan., L.(1993). The Dimensionality and Correlates of Flow in Human-Computer Interactio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s*, Vol. 9, pp.411-426.
- Wells, A. (1988), "Self-Esteem and Optimal Exper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19-326.

【 부 록 】

- 설 문 지 -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농업경영인의 행복도 측정을 위한 조사로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의 연령, 영농경력, 영농종사자수, 영농자동화, 인터넷 사용시간, 판매만족도, 생산량 달성, 컨설팅 회수와 행복도와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각 질문을 읽으신 후

1. 농업인의 특성 설문에서는 현재와 상황을 체크해 주시고
2. 행복도 설문에서는 평소 느낌이나 생각이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한 통계처리에만 사용되며,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조사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도교수 : 주 형 근

연구자 : 김 준 호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석사과정

연락처: (HP) 010-6235-6174

E-mail: kjhiyh77@hanmail.net

농업경영인 행복도 측정 설문지

1. 농업경영인 특성 설문

연령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영농경력	3년이상, 5년이상, 10년이상, 20년이상, 30년이상
영농종사자 수	1인이상, 2인이상, 3인이상, 5인이상, 10인이상
컴퓨터로 농장관리	하지않음, 농장일지, 재무관리
인터넷사용	하루 30분 이상, 1시간이상, 2시간이상, 3시간이상
농업정보 수집	농업관련관공서, 신진지견학, 잡지구독, 거래처
향후 농지규모방향	확대, 축소, 현상태유지
농업일지작성	작성함, 작성하지않음
영농계획서 작성	작성함, 작성하지 않음
판매가격 만족도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않음
지난 3년간 생산량 달성	달성함, 2년 달성함, 1년 달성함, 달성하지 못함
지난 3년간 컨설팅 횟수	3회 받음, 2회 받음, 1회 받음, 받지 못함

2. 행복도 설문

각 문장이 귀하가 현재 농업에 종사하면서 일하는 행복도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각 문항의 옆에 주어진 척도를 사용해서 다음의 각 문항이 귀하의 의견과 얼마나
같은지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동그라미(O) 하십시오.

1점에서 시작해서 5점 최고 점수

측정변수	질문사항	1	2	3	4	5
제어도	1.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신감이 있다.					
흥미성	2. 농사를 짓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흥미성	3. 농업에 종사하면서 늘 행복하고 즐겁다.					
집중도	4. 일하는 시간에는 오직 농업에 관련된 생각만 한다.					
흥미성	5. 농사를 지으면서 상상력이 풍부해 졌다.					
제어도	6. 기계, 시설 등 전반적인 것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한다.					
관심도	7. 농업관련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참여한다.					
관심도	8. 교육에 받는 내용을 농업현장에 잘 적용하고 있다.					
집중도	9. 농업교육을 받는 동안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집중한다.					
집중도	10. 농사를 지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다.					

ABSTRACT

A Study on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Happiness of Agricultural Managers

Kim Jun Ho

Major in Convergence Consulting

Dept. of Knowledge Service &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Service

Consulting

Hansung University

First, these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measuring happiness level with Flow's four-dimensional components. Happiness level is inter-related with the level of control, concentration, interest, and concern, and these elements determine happiness of agricultural managers.

Second, happiness of the agricultural managers was verified based on socio-statistical classification. The most critical variant for happiness was control when you classified agricultural managers based on ages. Control also showed statistical difference when they were classified by the number of employees. Control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when they were classified based on agricultural automation. When they were classified by satisfaction of sales price, control, interest and concern displayed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level of production achievement, control and interest displayed statistical differences. On the contrary, their experience in agriculture, use of the internet, number of using consultation did not make any meaningful differences in happiness level.